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講座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獨蘇共同聲明과 英佛態度

一

波蘭을 東西로 挾擊하여 어미 征服하엿고 또 任意로 그 領土를 分割하여 互相의 國境까지 協定한 뒤 獨蘇의 兩國은 共同聲明을 發하여 今後戰爭의 繼續은 何等의 必要가업는터로 그責任은 英佛이 질것이라고 斷定하고 英佛에 向하여 새로운 態度를 決定함이 어떠냐고 和平의 提議를 暗示하엿다。그 것이 한갓 口實이든 아니든 波蘭의 擁護를 爲하여 일어난 英佛에 對하여 이聲明은 一種의 屈服을 强要하는것임에 틀림이 업는것이니 첫째 獨逸은 무슨 힘으로써 그 屈服을 强要하며 둘째 蘇聯은 어째서 獨逸의 그 强要에 參加하며 아니 그보담도 셋째 英佛은 그 聲明에 놀래어 果然 屈服할것인가 도리어 感情의 激化를 招致하여 더욱 더 抗戰一路로 나갈 것인가等 우리의 궁금한바 적지안타。

二

英佛의 軍事家가 波蘭의 軍力을 그다지 信賴치 안 한것은 一隊의 兵士와 一機의 飛行機로써도 돕지 안한것을 미루어서 闡明되고 그러타고 獨逸의 지그프리드線을 넘어서 一二千里로 進攻하기도 어려운줄 測定한것은 開戰後 조금도 積極的 攻勢를 取치안는것을 미루어서 斷定되는바다。여기서 英佛은 그의 가장 優勢인 海軍力을 利用하여 獨逸의 封鎖를 行하여 經濟的으로 獨逸의 疲弊를 기다리려는 長期戰에 나오는 수밧게업는터인데 獨逸도 이點을 미리 覺悟한지라 波蘭의 太半을 蘇聯에 提供함으로써 위선 蘇聯의 物資供給을 確保시키고 다시 蘇聯으로 하여금 土耳其를 달래고 에스토니아로 進出케하여 黑海와 발틱海에 잇서 英佛의 勢力을 一掃시킬수밧게 업는것이다。

三

그러나 獨逸은 英佛과의 戰爭을 이以上 繼續하엿자 結局 蘇聯의 발틱制覇와 발칸進出을 보게 되는 대신으로 自己의 宿願인 東歐의 覇權을 斷念하게 되고 보즉 어느 程度까지 蘇聯의 加擔을 빌어서 英佛을 脅威하여 戰爭의 一段落을 바라고 잇는지도 모른다。動亂이 勃發되기前 히틀러總統이 英國에 對하여 兩國對戰의 不利를 力說한 것으로 보나 요지음와서 英國만을 攻擊하고 佛國을 除外하는 것으로도 보나 波蘭의 分割을 兩國의 領土로 明言치 안코 단지 勢力範圍라고 規定한 것으로 보나 그러한 推測이 全然 허튼 것은 決코 아니다。그와 反對로 蘇聯은 오직 中立을 標榜하는 한편 獨逸에 親近을 表示함으로써 波蘭의 太半을 엇고 英蘇戰時通商條約을 提議하는한편 土耳其의 親英政策을 阻害하며 에스토니아國內의 軍事施設을 自由로이하여 結局 將來의 國防을 튼튼히 하는 同時에 英佛對獨의 戰爭을 操縱하려 하고 잇다。蘇聯이 獨逸과 함께 和平提議의 聲明까지를 發한것도 그 本意가 戰爭 그自體의 終熄에 잇다기 보담 그 戰爭에 對한 自己의 發言權을 좀더 크게 하는데 잇지 안한가 疑心한다。

四

風聞에 依하면 [illegible]

外相과 蘇聯當局者間의 協議는 [illegible] 그다지 멀지 못하다고 보엿는지는 마치 몰라도 一時 決裂을 豫想하엿다고 한다。英佛側에서는 依然 그들 獨蘇提携의 根據가 아직 薄弱한 것인다。지금 程度의 獨蘇提携로는 이 壯談하는 바와가치 一個月만은 잘 알고 잇을 것이다。아직 吳越의 同舟를 넘는 距離에 벗어 이 事態를 豫見하더구나 루마니아에 잇서 獨蘇間의 關係, 발칸에 잇서 獨伊間의 關係, 발칸에 잇서 伊蘇間의 問題等 그 互相의 利害對立도 잇을것이 아니라 伊太利조차 獨逸과가치 蘇聯에 對步할수는 더 한層 疑問이다。方今 차노伊外相이 伯林을 訪問하여 獨政府當局과 協議中이요、며칠뒤에는 蘇聯의 모로토프委員과 보로시로프元帥가 獨逸을 訪問하리라고한다。和平工作도 그들의 討議에 오를지 안 할것은 아니나 그 互相의 勢力圈의 協定이 더·重要한 때에를 이룰것이 아닌가 한다。아니 設使 伊獨蘇三國이 굿게 結束하여 가지고 抗戰한다고 하더라도 英佛이 戰爭을 고만두기는 大體의 面目上으로 到底히 不可能하다。獨逸의 和平提議에 不拘코 또 英佛의 本意도 아닌에 不拘코 戰爭은 아마 本格的 長期戰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된다。

地方長官會議서 各相訓示

歐洲情勢를考慮後 綜合的對外政策을實行

野村外相

【東京電話同盟】二日地方長官會議에서의 外相訓示要旨는 如左하다

생각컨대 今番歐洲戰爭은 由來하는바가 深刻하여 그前途는 逆睹키어렵다。筆者歐洲大戰時와는 그性質을 달리하여 武力戰이기보다 오히려 外交戰、經濟戰、思想戰인 性質을 만히가지고잇스므로 自然長期에 亘하리라고 생각된다 帝國政府는 開戰의報道를 듯자 帝國은 이에介入치안코 專혀支那事變解決에邁進할旨를 中外에闡明하엿다 第三國間에 戰爭狀態가 發生할時 이에參加치안는 國家는 國際法上의 中立義務를 享有負擔하는다 上의 中立義務를 享有하는 것을따서 政府聲明은 그意味에서 我國의 歐洲政策에 對한態度를表現한바로 이가튼 表明方法은 帝國政府가 어디까지 支那事變解決을 基調로하여 第三國에對한態度를 그基調에서 決定하는意味를 含蓄케한것이다 政府로서는 事變處理의 旣定方針에 則하여 歐洲情勢도 充分考慮한後 多角的 綜合的對外政策을 實行하여 非常時局에 對處하려한다 一方重慶政府의 困窮은 過重하고잇기는하나 只今까지 余喘를 保持하는 所以는 主로第三國의 物的心的援助에 依한것으로 支那에서의新中央政府의 樹立工作을援助하는同時에 蔣介石政權의裏面的外部的原因인 第三國援助를除去할方策을 考究함이必要하다 元來我國이 支那에要하는바는 善隣友好의 原則에基하는 日支間의 緊密한 政治的、經濟的提携에 잇는터로 支那의經濟活動을 閉鎖하여 第三國의 正當한 經濟活動을 排除하려는생각은 全然가지고잇지안타 第三國의 杞憂를 解消하려고 努力하여 왓는데今後는 如實히 이를 表示하여第三國의 援蔣態度를 抛棄시키도록 誘導할 必要가잇다고 생각한다 英國과의 關係는 지난七日 東京에서 會談을 하엿는데 그結果、英國은 敵을利롭게하고 我國을 害하는가튼 措置를控制할旨를 右原則에 承認하면서天津租界問題處理에 對하여서는我方의 要求를 容認치안흐므로會談은 決裂되엿다 米國에 對하여서는 東亞新秩序建設에 關한 我方의眞意를 充分히 理解하도록 一層努力하려고생각한다 蘇聯과의 關係에對하여서는 滿蒙軍의 所謂노몬한事件에 關하여 我方에서 交涉한結果 九月十五日 東京大使모로토프 外務人民委員과의사이에 停戰에關한 合意가 成立되엇다 政府는 今後도 日蘇間의 諸懸案은 全部解決되도록 힘쓸생각이다

一般民需에對한 經濟統制一層强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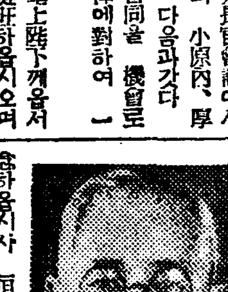
青木藏相

【東京電話同盟】二日地方長官會議에서의 青木藏相訓示要旨

支那事變勃發以來 我國財政은 急激히 膨脹하여 國民經濟에波及을 惡影響에 對하여는 萬全의對策을 講究할 必要가잇기때문에 國民經濟와의 調和를 考慮하여 放漫을 嚴戒하고 節約을 圖謀하기爲하여 政府는 昭和十四年度歲出豫算에잇서서 一般會計 特別會計를通하여 二億一千五百餘萬圓의節約을 實行하고 또物資動員計劃에 變更을加하여 이를節約할方針을取하엿다 十五年度豫算에 對하여는 最重要한 政策實施에 綜合集中租稅의增徵 其他에依한 普通歲入增加를 꾀하는一方 모든經費에對하여 嚴密한檢討를加하여 物資、勞力、資金及物價等에關한 經濟諸政策과의調和를 特히考慮하여 刻下의綜合經濟力에 立脚한戰時豫算을 編成하엿다 그리고 中央、地方을 通한 稅制의一般改正은 中央及地方財界 國民經濟生活에 直接으로 重大한關係가 잇기때문에 稅制調査委員會의 審議한結果를基礎로하여 現下事態에 卽應한 適切한具體案을 作成中이니 諸君도 이達成을 爲하여 協力하여주기를 切望한다 最近 我國對外貿易의 狀況을 보면 今年一月 以後 九月까지의 期間에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輸出約三割五分輸入約一割이 各各增加하여 貿易統計에 잇서서 約四億圓의輸出增加로 되어잇다 그러나 이것을 外貨獲得의 見地에서 滿洲及支那를除한 第三國에 對한關係로보면 相當한多額의輸入超過로 되어잇기때문에 樂觀을不許하는바이다 歐洲의 今番戰爭은 前番과는 그事情이 다른기때문에 곳 戰爭景氣를 謳歌한다는것은 가장警戒할바이다 假令我國輸出貿易促進에 好條件을 齎來하는일이 잇다하더라도 原材料의 入手難、輸送力의 不足等으로 그輸出增加에도 自然限度가잇는것이다 또는 貿易決濟關係等의 混亂에依하여 輸出減少를難免할것이 豫想된다 그리고 物資에 따라서는 輸入이 困難하며 或은 不可能한것이 잇기때문에 我國當面의 新東亞建設、生産力擴充計畫의 遂行上 적지안흔支障이 豫想되는터로 結局一般民需에對한 經濟統制를 更一層强化시키지아니치못할 境遇도생길것이다、要컨대重要物資의輸入圓滑化를 힘쓰지안흐면안된다 그리고 我國의 對外爲替市勢는 從來英貨에 링크되어잇섯기때문에 今番歐洲의戰爭을 契機로하여 市勢는急激히低落하엿는데 이것은 英貨의對外價値를 一定率로하여 機械的으로 決定하여 我國對外爲替市勢를 混合한것에 原因이잇는것으로 이影響의 甚大함에 비치어 政府는 九月二十九日부터 英國公定市勢보다 對米市勢를 算定하기로하엿는데 今後의 內外爲替市場에 不斷한注意를할必要가잇다 또 金融界는 事變勃發以來 未曾有의大變化에 直面하고잇스나 지금까지는 大體로 順調로推移하고잇다 그리고 巨額의 政府資金散布는 貯蓄獎勵運動의 徹底에따라 資金蓄積을潤澤케하고잇는데 一方 最近株式의 相場의急騰에依하여 株式의 急騰은 投機思惑이 나오는데 이를放任하면 憂慮할事態가 發生할念慮가잇기때문에 銀行其他金融機關에對하여 株式、商品은 勿論하고 思惑에流用될念慮가잇다고 認定되는 資金의放出을 抑制하도록 通達하엿는데 今後나 諸君의努力을 求하는바이다 다음은 今番物價騰貴抑制를爲한 應急措置로서 國家總動員法에 基하여 一般的價格引上停止、勞務者賃金及給料手當等의 引上停止를하기로되어 이勅令은 近近公布될터인데 이運用은 國民의理解와 協力을기다림이 적지안키때문에 諸君도 充分協力하여주기바란다 貯蓄獎勵가 公債消化 生産力擴充 物資供給 物資節約上 極히重要한것은 말할必要도업는바로 今年一月부터 九月末까지의 公債發行額 三十六億三千餘萬圓에對하여 三十六億八千萬圓으로超過되고 消化額이 發行額을超過하는 好成績을거두는데 今後도 相當히多額을 發行할것이豫想되기때문에 貯蓄의獎勵에對하여 一段의努力이 必要하다고생각되는바로 今後貯蓄獎勵 消費節約等 國民運動에對하여 更一層强力하여주기바라는바이다

時局趨移를注視 時艱을未然에防止

小原內相



【東京電話】二日午後三時半부터 內相官邸에서 再開된 地方長官會議에서의 小原內、厚相의 訓示要旨는 다음과갓다

余는 各位의 會同을 機會로 皇室의御隆昌에對하여 一言하고싶다 恐惶하옵게도 聖上陛下께옵서 御健旺하옵시오며 玉體益益 御健康하옵심을 奉拜하며 天機 매우御麗하옵심을 奉拜하여 九千萬國民이 모두恐悅至極하는바이다 陛下께옵서는 事變勃發以來 日夜軍國勤務에 大御心을 爲하옵시사 或은海外出征將兵의 勞苦를 懸念하옵시며 或은 銃後國民生活의 安否를軫念하옵시사 恒常至仁의 御軫念을 惡하옵시는 御模樣을 奉拜하는것은 오직恐懼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地方長官은 기피大御心을 奉體하여 鴻大無邊한 聖恩에 身命을바처서 그職司에萬全을 期하지안흐면안된다고생각한다 至今에 事變勃發以來 이미 二年有餘、忠勇한 將兵의困苦艱難을참고 力戰奮鬪한과 國民의 赤誠으로 擧國一致東亞新秩序建設에 邁進하고잇슴은 實로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事變의 長期化와 內外情勢의 複雜과는 我國政治、經濟思想等 各部門에 廣汎深刻한 影響을미치게하는이때 事變處理에 國家總力을結合하여 戰時體制를 强化하는 것은喫緊의要務인터로 이를爲하여서는國內治安의 萬全을期할必要는더욱이 緊切을加하고잇다 이重大時局에際하여 我對外及對內의 [illegible] 經濟的、社會的不安을釀成하는者 或은不正을 敢行하는者等은반드시 업다고도 할수업스므로 各位는 恒常時局의 推移와民心의 動向에 周到한 注意를하여時艱을 未然에 防止하기爲하여 適切한措置를 講究하여 적어도非違의 行政措置를 하여야할境遇에 對하여는 斷乎한態度로써 이에臨하도록 銃後治安의完璧을 期하기바란다

그리고 時局에 際하여 가장切實한問題인 物價騰貴抑制와物資消費節約等에 對하여 一層効果를 거두도록 힘쓰기 바란다 眞實한 擧國一致의 實을거두어 總動員業務의 圓滿遂行을 企圖하기爲하여 特히充分한 官吏體制를 確立하는것은 刻下緊急한 要務이다 그런데 往往官吏中에는 獨善의 言行을하는者가잇서 國民은官吏의 態度를無理解하다고 詰難하는者가잇다 이때문에 國民의積極的協力은阻害되고 官廳相互間 意見의不一致가國內에서 對立하는因子가될이 絶無하다고도할수업다 그런때문에 官吏는 國民의福祉增進을圖謀하고 國民生活各部門에亘하여 强力한統制가 時局收拾을爲하여 不得已함을 懇切히理解케하도록 努力하기바란다

陸軍省發表

陸軍省發表 一日午後五時 左記와如히 發令되엇다

▲轉補

補參謀次長 陸軍中將 澤田 茂
陸軍中將 中島 鐵藏 參謀本部附被仰付
陸軍少將 野田 謙吾 補陸軍省人事局長
陸軍中將 飯沼 守 東部防衛司令部附被仰付
陸軍少將 武藤 章 補陸軍省軍務局長
陸軍中將 町尻 量基 參謀本部附被仰付
陸軍少將 星野 利元 補教育總監部第二部長
陸軍中將 吉田 悳 補騎兵監
陸軍中將 今村 勝次 補下關要塞司令官
陸軍少將 瀨谷 啓 補基隆要塞司令官
陸軍少將 澄田 睞四郞 補陸軍重砲兵學校長
陸軍少將 椎名 正健 補陸軍工科學校長
陸軍少將 人見 秀三 補仙台陸軍教導學校長

▲進級

陸軍少將 ▲木村弘人 ▲富永信政 ▲藤田謙一 ▲上月良夫 ▲岩下新太郎 ▲島本正一 ▲井手鐵藏 ▲小島吉藏 ▲和南三郞 ▲毛利浩 任陸軍少將(各通)

【東京電話同盟】參謀次長、軍務局長等 陸軍中央部重要人事異動은 二日午後五時 陸軍省으로부터 發表되엇다 今回의 異動은 畑陸相就任直後 第二回의 人事異動으로 陸相은就任直後부터 對歐處理策이 白紙에還元되엇스므로 陸軍中央部의 空氣도 一新할方針에서 中央部人事異動에 對하여 考慮中이던바 먼저過般의 第一次異動時에 支那派遣軍總司令部의 編制及 關東軍의 異動을行하여 第一線陣容을 强化整備한後 今回中央部異動의 一部를 斷行한것이다

雄 ▲黑岩義勝 ▲永見俊德 ▲渡邊右文 ▲樋口季一郞 ▲木村民藏 ▲渡邊道大 ▲今村勝次 ▲飯沼守 ▲渡邊正夫 ▲平林盛人 ▲內山英太郞 ▲上野勘一郞 ▲鷹田宗市 ▲鈴木率道 ▲村上啓作 ▲權田直次郞 ▲井上政吉 ▲大賀茂 ▲瀨谷啓 ▲原田熊吉 ▲阿部規七 ▲寺倉正三 ▲吉澤忠男 ▲田邊盛武 ▲本多政材 ▲北野憲造 ▲中村明人 ▲笠原幸雄 任陸軍中將(各通)

陸軍主計少將 ▲鹿野澄 ▲大內球三郞 ▲吉野好武 任陸軍主計中將

陸軍步兵大佐 ▲竹原三郞 ▲松本標 ▲吉田峰太郞 ▲吉田弘 ▲池田 [illegible]

陸軍首腦大更迭

參謀次長에澤田中將 軍務局長엔武藤章少將拔擢

澤田參謀次長略歷

【東京】新參謀次長 澤田茂中將은 高知縣出身 今年五十三歲 士官學校第十八期生으로 明治三十九年六月砲兵少尉에 任官 累進하여 昭和十二年 十二月中將에 昇進하엿다 其間陸大敎授 波蘭、羅馬尼亞 公使館附武官等을 歷任하고 昭和十三年七月 第一線 ○○部隊長으로 北滿方面에서 活躍한바 陸軍部內의 蘇聯通이며 西伯利出兵 事變에 出征하여 功五級이 下賜되엇다

武藤軍務局長略歷

【東京電話同盟】陸軍省軍務局長 武藤章少將은 熊本縣出身 今年四十八歲 士官學校第二十五期生으로 大正二年十二月步兵少尉에 任官 累進하여 昭和十四年三月九日少將에 進級되엇다 其間陸大를 優等으로 卒業 獨逸駐在武官 軍務局課員 陸大兵學敎官을 歷任 今次支那事變에는 中支、北支方面에잇서서 活躍 過般의 日英東京會談時에 現地軍首席代表로 活躍한것은 周知하는바로 陸相을 輔佐하는 軍務局長으로 最適任者일것이다

驚異的躍進人事

—今回陸軍大異動評—

【東京電話同盟】畑陸相就任後 第二次陸軍異動의 一部는 二日午後 陸軍省으로부터 發表되엇는데 今番異動에서는 將官級의 進級、中將四十名(內二名主計) 少將六名이라는 大量進級으로 異動內容이 相當히 廣汎한것이 想像된다 더욱이 그進級에잇서서 八月一日異動때에 陸士二十一期의 前軍務局長 町尻量基、第十六師團長 石原莞爾等의 俊秀九名의 進級을 보앗는데 僅僅二個月만에 一年後輩인 二十二期의 俊材、鈴木率道、村上啓作、田邊盛武、原田熊吉、寺倉正三、本多政材、北野憲造、中村明人、笠原幸雄等 少將十名의 中將進級은 事變下라고할지언정 驚異的躍進人事이다 一方에잇서서는 參謀次長、陸軍省軍務局長 人事局長의 中央首腦部의 大更迭이잇서 中島參謀次長、町尻軍務局長은 參謀本部附、飯沼人事局長은 東部防衛司令部附로 仰付되엇는데 이들은 모두 重要職에 就任하기爲하여 待機를爲한 때문이다 新參謀次長 澤田茂中將은 前參謀次長 中島鐵藏 陸軍次官 山脇正隆 阿南惟幾 山下奉文等과 同期의 士校十八期生으로 現在 十八期生은 三十名이 現存하고 停年名簿에 依하면 澤田中將의 席次는 二十番째다 그러나 從來參謀次長의 重職에는 平時 戰時를 不拘하고 部內에서의 最優秀한 人材를 配置하고 더욱이 滿洲事變以來 所謂大參謀次長制를 取하여 當時의 臺灣軍司令官 眞崎甚三郞大將(當時中將)을 起用하고 이어서 前北支軍最高指揮官 杉山元大將(當時中將) 支那駐屯軍司令官 西尾壽造大將(當時中將)과 가튼 巨物을 起用하엿는데 그後 今番支那事變에 依하여 人事의 關係로 現北支軍司令官 多田駿中將을 經由하여 中島中將에 이르럿는데 今番參謀次長의 銓衡에 對하여는 三長官間에서 相當히 熟慮한結果、澤田中將을 拔擢하게된것이다 同中將은 部內에서 有數한 歐西亞通인 그經歷이 말하는바와가치 波蘭、羅馬尼亞公使館附武官을 除하고는 거의 軍隊勤務로 中央部에는 關係가적엇다 武藤軍務局長은 今番異動中의 白眉로 同少將은 士校二十五期로 이다 二十五期에는 靑木重誠 田中新一、西原一策、當時次等 各少將의 秀才들인데 그中에서도 逸材이며 過般의 日英東京會談의 現地代表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武藤少將은 滿洲事變以來 軍部內 指導勢力의 中心이며 그經歷은 參謀本部員、軍務局課員、同軍事課高級課員을 歷任하고、또今番事變에는 中支北支軍某要職의 經驗을 가젓고 中央에서 政治의動向、第一線의 空氣를 아울러 熟知하고잇는强 [illegible]

敵遺棄屍體萬餘

湖南包圍作戰의大戰果

【漢口二日發同盟】今番湖南北部에서의 包圍殲滅戰은 二日早曉 平江長壽街公路一線으로써 事實上 包圍圈內의 敵殲滅에 成功하엿는데 作戰的見地에서 今番殲滅戰의 規模는 先番의 徐州武漢 各作戰을 凌駕하는 大規模의것인데 이를巧妙迅速하게 遂行한 戰績은 燦然한 記錄을 戰史에 남긴것이다 卽洞庭湖에 構築된 敵堅陣은 正面新墻河를 第一線으로하고 汨水를 第二線으로하여 右翼에 險峻萬洋山系、左翼에 洞庭湖의 自然要害가 잇서 敵將薛岳은 이로써 不拔의 難攻不落을 誇稱하여 湖南의 [illegible] 敵主力을 誘引하고 石橋吉에依하여 二個에서 敵前上陸을 敢行、敵의側面을 脅迫하여 南進을 敢行、萬洋山系右翼陣을 潰滅케하여 通城方面으로부터 南下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한 門脇、池田各部隊는 嶮峻을克服하고 또別働의 北村 山村各部隊는 그兩側을數縱隊로 나누어 南進、平江附近에서 兩翼進擊部隊는 相銜하여完全한 包圍戰에依하여 一兵도남기지안코殲滅하여 展開된것이다 今番作戰의 戰果에서 判明된遺棄死體는 一萬이라고하나 實數는 數倍인것으로보인다

英獨大空中戰展開

【倫敦一日發同盟】英國情報省은 一日西部戰線에서 英獨兩空軍間에 大空中戰이 展開되어 英國偵察機三機及 獨逸戰鬪機二機가 各各擊墜되엿다고 發表하엿다

라트비아貨物船을 獨海軍이拿捕

【스톡홀름二日發同盟】발틱海方面에서의 獨逸海軍의 北歐中立諸國船舶에 對한 戰時禁制品檢索은 益益强化되고잇서 一日 瑞典스키니아港을 出帆、발틱海方面을航行中의 라트비아貨物船 이만다號(一千二百三十三噸)는 獨逸軍艦에 拿捕되어 獨逸某港으로向하여 護送되엇다고한다

丁抹汽船도擊沈

【코펜하겐二日發同盟】獨逸潛水艦戰術은 그後益益猛威를發揮하는 때문에 北歐中立國船舶은 大恐慌을 招來하고 잇는바 一日 丁抹汽船벤데이아號(一一五〇噸)는 獨潛水艦의 水雷攻擊을바더 沈沒된바 그때乘組員十七名中十一名은 死傷하엿다고한다

和蘭掃海艇 北海서大破

【암스텔담一日發同盟】和蘭海軍掃海艇헬리·예르드號(五二四噸)는 一日午前北海헬리세링그島近海를 航海中機雷에 觸觸되어大破하엿다 同號는 卽時附近落口에曳航되바 乘組員中 死者三名 重傷者三名 輕傷者三名 三名方不明되고 三名을내엇다 同海面에서其他和蘭掃海艇이 沈沒되어 二十九名의 死者를내인뒤의 일이므로

赤都西安、成都空襲

【香港二日發同盟】中央通信社西安來電에依하면 日本空軍은 一日朝午前五時半부터 八時二十分까지 數回에亘하여 陝西省西安을空襲 敵軍事施設及軍隊에 激烈한銃爆擊을加하여 甚大한損害를주엇다

【○○基地二日發同盟】我海鷲의 精銳는三夜에亘한 重慶四周의 六飛行場에對한 大空襲으로 敵首都로하여금 混亂과 恐怖에 陷入케한바 海軍航空隊는 二日未明 다시 成都로飛行 惡天候를무릅쓰고 同市郊外의 二大飛行場을 奇襲 敵이 優秀重爆機를 秘藏하여둔 格納庫를 破壞하엿다 卽二日午前三時 三原大尉가 引率한 一隊는 成都西北方五杆鳳凰山飛行場에 夜襲을敢行 燈火管制下의 成都는 暗黑世界로化하엿스나 同飛行場을發見 이때 挑戰해온 敵戰鬪機E十五型數機와 交戰機體에 機銃彈의 猛射를 바드면서 兩側格納庫에 集中猛爆을 反復하여 戰果를 確認後 全機無事歸還、그리고 이보다 느저서 同五時 再次 成都를 空襲한 中村大尉引率 一隊는 成都西南五杆 太平寺飛行場을 襲擊코자한바 地上으로부터 高角機銃을 亂射하며 一方敵機는 執拗히 挑戰하여 왓스나 目標가될 河川이 멋갈래나 平流하여 我目標를 그릇치게하여 必死의 搜査飛行을 續行하기 一時間後 마침내 目標한 太平寺飛行場을 發見코 巨彈을 퍼부어 黎明이 되자 悠悠히 全機가 歸還하엿다

英支國境方面 蠢動支軍猛爆

【廣東二日發同盟】英支國境附近 沈默을지키고잇던 敵部隊는 最近再次國境線東側地區方面에서 蠢動을 始作한것을 察知한我陸軍航空部隊의 ○○機는 一日細雨와 密雲을무릅쓰고 偵察을續行中 國境線東北橫岡亞方面에 集結中의 一千餘敵을 發見 이에 巨彈의 비를 퍼부어 殲滅的打擊을 주엇다

汪兆銘에激勵電

厦門國民黨支部서

【厦門二日發同盟】全支에 澎湃히 이러된 新國民黨 結成和平救國運動에 呼應하여 암서組織準備運動에 邁進中의 中國國民黨 廈門某所에서 開催、執行委員十五名其他 役員選擧後 今後具體的 運動方法에 對하여 協議하엿다 그리고 大會散會後 執行委員會 名義로써 汪兆銘氏에게 如左한 激勵電을 發하엿다 蔣政權은 不辭하고 和平을主唱하여서 黨國을 愛護한主席에 對하여 羅國民은 一齊히 欣仰不堪하는바이다 福建全省黨員은 民衆과함께 主席의主張을 徹底的으로擁護키를 誓約함

米收穫豫想 第二次發表

【京電話同盟】農林省第二次發表 岩手縣外十三地方의 米豫想收穫高는 一七、八六四、二九〇石으로 前年實收高에比하여 一分二厘의增加 前五個年平均實收高에比하여 八分五厘의增加이다 그리고 前回分과의合計는 三二、七二八、八五〇石으로 前年實收高에比하여 三分五厘의 減으로 前五個年平均實收高에比하여 三分增加이다 作付面積은六五九、三八五町六反으로 前年에比하여 一分減少이다

人事·集會

▲大竹十郎氏(總督府內務局長)渡東中 四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着歸任

市況 (二日)

◆橫濱生絲(後引)◆ 當限 一五三〇 先限 一五三〇

歐洲大戰日誌

九月一日 히틀러總統國防軍에게波蘭進擊命令

二日 獨波交戰 全波蘭에 [illegible] 軍事化 [illegible]

三日 英佛對獨宣戰布告 ▲英海上封鎖開始、獨軍『카테가트』海峽에水雷敷設 ▲英空軍 獨領內에 나치스排擊삐라撒布

四日 帝國政府 歐洲大戰不介入聲明 ▲佛、陸海空三軍行動開始

五日 波蘭政府『루블린』에遷都 ▲米中立宣言과함께中立法發動

六日 波蘭의『크라카우』陷落 ▲英艦隊一部 獨潛水艦掃蕩開始

七日 全戰線에서 波軍退却開始 獨軍의『알소』包圍陣은 縮少 ▲英參謀總長『아이안사이드』大將과 佛國防總監 갸믈將軍 巴里서 作戰協議

八日 獨軍先鋒部隊『알소』一角突入 ▲佛軍先道部隊『로-렌』州西部地帶占領

九日 獨軍北上部隊 南波蘭『갈[illegible]』

十日 『알소』에서 獨波兩軍市街戰 ▲『루블린』爆擊 ▲蘇、西部國境에 集結開始 ▲『루마니아』 豫備兵召集 ▲佛、金輸出禁止

十一日 佛軍『자르브뤼켄』飛行場命令 ▲獨軍『알소』西南『로즈』에入城 ▲英軍佛蘭西에到着 ▲英情報省 히틀러政權打倒를 再聲明

十二日 獨軍 波蘭의 舊獨領全部를 占領完了 ▲英佛軍事最高會議를 巴里서開催 ▲원저公 倫敦到着 ▲佛軍자르브뤼켄』進擊

十三日 波政府機關『크레멘츠』에再移轉 ▲英派遣兵、佛軍과共同作戰開始 ▲獨軍 波蘭『렌베르그』突入 ▲佛戰時內閣成立 ▲西部戰線서獨佛軍大空中戰展開 ▲獨戰時禁制品目發表 ▲英情報省 히틀러總統不相對聲明

十四日 波軍『뽀즈난』奪還 ▲蘇聯、獨에 嚴正中立을傳達 ▲獨潛水艦出動命令 ▲獨軍『알소』總攻擊、또『그디니아』도攻略 ▲米中立國權利留保聲明 ▲英首相獨逸의無差別爆擊을非難 ▲波政府『크레멘츠』에서『잘레스치키』로移轉 ▲三次移轉

十五日 獨軍『그디니아』占領 ▲獨女子百年團員强制徵用 ▲히틀러總統、波蘭南部戰線視察 ▲英、獨逸向禁制品名의沒收量發表 ▲노몬한停戰協定成立

十六日 獨軍 波軍八千捕虜 ▲모시스키波大統領 羅領內 避難 ▲獨航空省 擊墜事件勃發

十七日 蘇軍波蘭內進擊開始 ▲英佛兩國電話로 蘇軍波蘭內進駐對策協議 ▲『모로토프』蘇外相 波蘭駐在使節을召喚 ▲駐伊米大使 伊外相에게 獨態度不變時米參戰도不可避라고警告

十八日 英政府 對波援助決意不變을聲明 ▲英航空母艦『카』號 獨潛水艦에게 被擊沈沒 ▲원저公 國外某要職에 就任 ▲蘇軍 [illegible]

十九日 [illegible] 波蘭內十七軒進入 ▲蘇軍의波蘭 進駐에 對하여 獨蘇共同聲明發表 ▲波軍民、羅領內로擴散 ▲獨軍攻勢로 最後決意를 放送 ▲英佛長期戰도不辭 ▲히틀러總統 西部戰線의 視察

二十日 獨軍 [illegible] 對英佛長期戰도不辭를 宣言 ▲獨軍、米軍에 對하여 [illegible] 市에 入城

二十一日 英政府 英獨交涉經過를 發表 ▲米、對蘇態度不變을闡明 ▲羅國首相나치스暗殺團에 寺內大將 히틀러總統과會見

二十二日 佛軍『볼그』高地占領 ▲獨蘇間 境界線劃定코 共同聲明發表 ▲英佛第二回戰時最高會議에서 共同對策確立 ▲[illegible]

二十三日 獨潛水艦 諾威西海岸서 英船擊沈 ▲마이스키駐英蘇大使 英外相과 重要協議 ▲무솔리니首相과 시 [illegible]

二十四日 [illegible] 比利時에서 [illegible] ▲에스토니아 外相訪問 ▲米軍艦 [illegible]

二十五日 米리장스長 新中立法을 米上院外交委員會에 提出 ▲波蘭政府 [illegible] 長期經濟政策을力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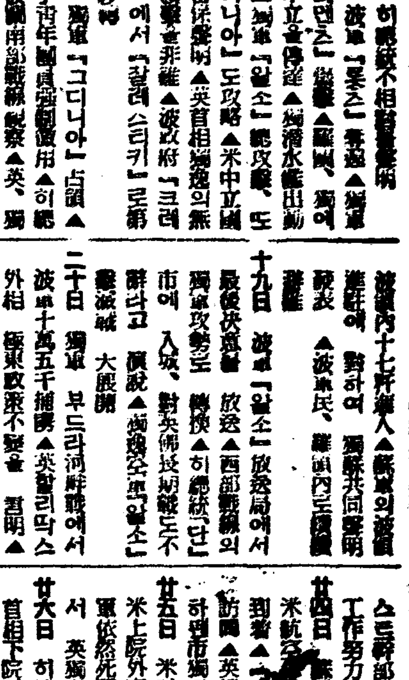
二十六日 히틀러總統 伯林에 凱旋 ▲英首相下院에서 長期戰決意 ▲英獨海軍大海戰開始

二十七日 『알소』陷落 ▲獨外相莫斯科訪問 ▲蘇軍、에스토니아國境 斯科에 集結 ▲히틀러總統 獨軍 占領地域에 軍政施行命令

二十八日 英情報省 獨潛水艦七隻擊沈事件發表 ▲蘇、英國에 戰時通商協定案提案 ▲레오敎皇 戰國에 歐洲和平會議提議

二十九日 獨蘇新國境線劃定 ▲獨、英佛兩國에 宣戰撤回要望

三十日 차노伊外相 伯林訪問、獨伊提携와 和平問題討議 ▲간디翁 對英印度獨立을主張



早稻田大學講義錄

校外生募集

支那事變의進展에따라서朝鮮·臺灣·滿洲等에서靑年男女의知識慾은急速히向上하야 我講義錄의讀者도날로激增하고잇서서 躍進日本의諸君도어서速히入學하여時代의要望에相副할만한實力을 갓추어야 한다는 實際的으로 [illegible] 이름이업지안타。
入學資格은小學卒業程度。누구나지면内容見本을請求하라。

早稻田大學總長 田中博士

中學講義 前期一年 後期一年 學修一年 / 商業講義 學修一年半 / 高等女學講義 上同
政治經濟講義 學修一年半 / 法律講義 上同 / 文學講義 上同
建築講義 學修一年半 / 電氣工學講義 上同 / 電氣工事豫備講義 學修一年

內容見本은各科別로되여잇으니스며 드시志望하는講義錄을明記하라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二一三·電話牛込三四五

上道、金湖、奉元三町에 五千戶宅地를助成

土地장사는얼씬못하게收用令適用

京城府、明春부터着工豫定

住宅難緩和에巨彈

도시가 고르지 못하게커짐에 따라 날로심하여가는 주택난은 경성을위시하여 전조선 큰도시가 다같이 고통으로 밧고잇는 것인데 총후생활안정이라는 점에서볼때 이문제는 중대한사회문제로서 총독부에서는 지난여름 정무총감 통첩으로 각도에 주택난완화의 대책을 시급히세우라고 명령하는한편 철, 세멘트 목재등 건축용재의 알선을주요 목적으로 총독부안에 주택대책위원회를두고 철저한 완화책을 강구하기시작하엿던바 남조선일대의 한해대책때문에 이때까지 위원회한번 못한채 오늘에이르럿다 한편 현재당장 이만채나 집이 부족되는 경성부에서는위선 오천호를 지을터를 구하여 만들어주기로 안을세우고 다음과가치 상도정(上道町) 금호정(金湖町)봉원정(奉元町)의 세근교지에 오십이만평의 땅을사서 택지조성(宅地助成)을 하기로결정하고 총독부에 상신중이던바 한해대책을 세우고 여가를어든 총독부에서요사이 신중히검토한 결과적당하다고 인정하기로의견이기우러저 이달안으로시가지계획령에의한 택지조성안을경성부회에 자문하기로 되엇스므로부당국에서는 임시부회를 소집하여결정하여 명년봄부터 공사에 착수할터이다 세지구에 소요경비는 오백사십칠만원인데 특별회계를 만들어 전부기채를 할터이며 삼개년계속사업이 될터이다 한편오천호 짓는데드는철 재입천이백〃길로톤〃세멘트십이만삼천푸대 목재삼백칠십입방메ー타는 손쉽게 요구해지지안흐나 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적극적조달을 할터이며 조성공사가끗나는대로 쓰고살집을 짓는사람에게 유실평전호를 실비로분양하게 될터인데 여기에 주의할것은 이지구를사서 이익을보려다가는 도리어 토지수용령(收用令)에걸려 손해를 볼터이므로 판게부민은 당국의 성의잇는대책에 적극적협력을 할길이남아잇슬뿐이라는것이다

地區別計畫內容

각지구별계획내용는다음과갓다

▲上道地區 總面積一九七、〇〇〇坪 宅地面積一四六、〇〇〇坪 事業費一九〇萬圓 坪當一三圓 ▲金湖地區 二一五、〇〇〇坪 宅地一六〇、〇〇〇坪 事業費一三〇萬圓 坪當一四圓四〇錢 ▲奉元地區 一〇四、〇〇〇坪 宅地七六、〇〇〇坪 事業費二七萬圓 坪當一六圓七〇錢 合計五一六萬坪 宅地面積三八二萬坪 事業費五四七萬圓 坪當平均一四圓三〇錢

就職詐欺犯

이일 본정서에서는부내 봉래정(蓬萊町)일정목 봉래하숙에서 자칭 철도국원으로 개성서본정(西本町)오번지에사는 전파일범 나려진(羅麗鎭)(二七)을부잡아다가 취조중인데 그는금년봄부터 창경원(昌慶苑)과 각여관을 무대로 자기는철도국원인데 철도국에 취직을 시켜준다고하며 취직사기 이십여건을 범한 가짜 철도국원이다

定州强盜事件 最終審에서無罪

소화십년 오월칠일 정주군남서면 보산동(定州郡南西面寶山洞)사건에서 그동리에사는 생선행상이우준(李遵貝)(女)(二一)을단도로위협하고 돈십원을 강탈하엿다는혐의로 정역오년언도를 박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여온 정주군남서면 보산동정종인(鄭宗仁)(二〇)에 관한 고사건의 상고심언도공판이 이일고등법원에 잇섯는데 장곡부(長谷部)재판장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언도를 하엿다

京仁一帶를한울타리에 大工場進出에"이바지"

近接地帶는各各京城府仁川府로編入

市街地地方計畫案解說

경성과인천(仁川)을 중심으로한일대는 조선에잇서서 정치경제의 중추부일뿐아니라 황해(黃海)를격하고 지나(支那)대륙에근접하여 대외적으로 가장중요한 지위를 점령하엿스며 인천항의 확장과 한강수력전기공사의 진행으로인하여 일약대공업지대로서 획기적발전을 보게될것은거의 사실인데 경성, 인천각시가지구역내는 이미땅갑시 고등하엿슬뿐아니라 여지가업다시피된 현상이므로 금후대공장이 진출을거설할만한 곳을 구한다면 경, 인연선을 빼노코는 더욱한 적지를차즐수가업는형편이다 그러데이일대를 그대로 방치하여둔다면 규측업고 통제업는 시가답지안흔 시가지가생겨서 교통, 보안, 위생등에 열려될사태를 야기하기쉬울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한불리하며 불편할터이므로 이번에 시가지게획령에의한 시가지게획을 실시하여 장래 인천근접지대는 인천부로 경성근접지대는 경성부로 각각편입하려는 계획이다

土地時勢抑壓이目標

一攫千金의甘夢은飛去夕陽風

그런데 일단법령에의한 시가지게획이 실시되면 그구역은사실상으로 총독이 지정하다시피되어서 일체 매매가 중지되는 동시에 이구역내에잇는 공업지구, 주택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등을 공공(公共)단체로하여 상수도, 도로, 하수도등 각각적당한 기초시설을하도록한후 공업기업가들에게 이것을, 가장합리적인 시세에 공사설비를 엇저서 제공하게되는것이다 그리하야 공업조성지구로는 ▲九老里地區(始興郡)▲始興地區(始興郡)▲素砂地區(富川郡)▲富平地區(富川郡)▲西串地區(富川郡)▲桂陽地區(富川郡)▲陽川地區(金浦郡)등 칠개지구 구백구십팔만천평을 결정하고 또주택조성지구로는 ▲九老里地區 ▲始興地區 ▲梧柳地區 ▲素砂地區 ▲瓜安地區 ▲古康地區 ▲富平地區 ▲西串地區 ▲新亭地區 ▲桂陽地區 ▲陽川地區등 십일개지구 이천사백팔십구만삼천평을 결정한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부천군부내면(富內面)의일부 팔십삼만이천평을 공업지구중부내지구속에다가 장방형으로 결정하는데 이것은 이곳 한지구밖게업다 이외가치총독부에서 획기적대시설을하는것은 경인양대도시의 발전을위하여 선일대의 산업발전을위하여 토지세를 억압함이 그목표가잇는것이므로 이게구역(공업지구, 주택지구, 토지구획지구, 농경지구)중영

경기(일야)일대유백오만삼천평그중에도 특히 공업조성지구, 주택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등 세가지구역을 그매매가 전연통지될터이며 따라서 그시세도거의 공정가격처럼 지정될터이므로 이일대의 토지를가지고 가슴을울리던 일확천금의 단꿈도안개가치 사러지고 말게되엇다

年功加俸一率給與

內地敎員에範圍擴大할意思를文相이表明

轉職者가續出狀態

【東京電話同盟】 소학교원 우우안(優遇案)인 연공가봉(年功加俸)의 일률급여는 룡까이상 총정지령의 발동으로 실현이엿던 되던바 이일 하원전(河原田)문부대신은 규정의 범위안에서연 공가봉의 운용을 확대할의사가 잇다는것을 분명히하엿다 이연공가봉령은 시정촌에서 설립한 학교의 교원이 봉급령제삼조에 소해교원으로서 오개년이상 동일한 부현안의 시정촌립소학교에 근속하여 지방장관이 성적이조타고 인정하는자에 연공가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잇서 본과(本科)정교원은 연액 이십사원에서 내지유십원, 전과(專科)정교원 준교원은 연액십이원 내지 이십사원으로 되어잇고 다시 오년더근속할때마다 각각가봉되는것인데 농촌의 불황으로지방청 재정이 피페하는경향을보인결과 누차 제한을바다 오늘에는 약유십칠파ー센트가 급여를 밧고잇는형편이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소학교원의 전직자가 만하 미증유의교원기근의 현상이 나타나고 의무교원 수행에도 지장을가저올 경향이 보이므로 소학교원의 생활안정은 여간급한 문제가아닌데 문부당국에서는 중흥원범관계로 연공가봉의 일률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관게업을것이라고하여 이를입안중인데 성적고사의범위를 확충하여 될수잇는한도에서 일률급의 취지로 우우한 방침을 세우고 오는십일의 학무부장회의에서는 이취지를 설명하여지방의협력을 구하는 동시에 소학교원의 육영(育英)자금 주택수당에대해서도 지방에 충분한 고려를 요망하기로 되엇다

달업는 거리의 달비촌

새로씨운 『街路燈의 삿갓』

사람들노 가을의 새로운 모자를 쓰는 가을철에 여름내 몬지에 더러힌 갓(笠)을 쓴 가등(街燈)은 대경성 가을 밤거리의 정서를 상한다하여 경전에서는 이일부터 부내의 가등 갓 소제를 시작하엿는데 이로써 맑은 가을하늘에 밝은 달이 뜨듯 밤거리의 가등들 비치 놀어가는 가로수 입파리에 밝게 비치어 한층 가을정취를 깁게할모양이다

簡保十周年

普及宣傳에一層拍車

조선간이보험은 금년시월일일로써 창시십주년을 마지하여게약건수 이백만건보험금 약사억원을 돌파하고 적립금만도 오천만원을 넘는성적을 나타내엇다 그러나 각도별게약상황을보면(팔월말일현재)다음과가치 인구천명에 대하여 일백육십일건 즉 일할육분의 비률이되어잇는 도와 겨우십분이리바게 되지안는곳이잇서 보급상황이 고르지못한것이 틀어나고 잇스므로체신국에서는 십주년을 전기로하여 전시경제가 강요하고잇는저축장려의 한방법으로 행정관청의 협력을 어더 보급선전에적극노력을 하기로되엇다

▲咸北一六一件五 ▲京畿一五九、七 ▲平北一一四、八 ▲慶南一〇三、一 ▲平南九八、五 ▲咸南八八、五 ▲全北八八、一 ▲忠南八七、八 ▲黃海八一、一 ▲江原七七、一 ▲忠北七五、九 ▲慶北七五、〇 ▲全南七一、九

街頭에進出軍事講演

銃後後援强化週間과龍山師團行事

삼일부터 행하는 총후후원강화주간에 조선군에서는 의의잇는 행사를하기로되엇다는데 기보와갓거니와 용산사단에서는이에응하여 『총후후원강조』의군사강연회를열고 강본(岡本)보도부장이하 석원(石垣)대좌 화이(和)중좌 수산(守山)중좌등을 가두로내보내는에 첫날과 셋째날에는 오전열한시반부터 군인원호에관한 칙어봉독식과 훈화 묵도등을 행하고 둘째날(사일)에는 오전여덜시반부터 칙어봉독식의 뒤를이어 각부대표도령에게 씻이 육군묘지와 전몰장병의분골을안치한 대장사(大將寺)에참배하기로되엇다 셋째날(오일)에는 강본(岡本)소장이 인솔하여 용산부회의 주최로 총후국민과 상이군인가족위안회를 급율대회(給栗大會)로 연병장뒤산에서 열게되엇는데 사단장의 광동대표에 감사하는인사를 가하는외에 사단장으로부터 각도지사에게 각사장을발송한다 그리고 원강소에 노력할터이다

竹添町에行旅屍

이틀날 오후여덟시쯤 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경성선 구름다리우에 나이 설흔살가량된 사나이가쭈그리고앉진채 죽어잇는데 주소와성명은 모르나 남조선지방에서 올라온사람인듯하다고한다

次席檢事會議

昨日부터三日間開催

경제사범(經濟事犯)처리에 만한것과 총후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검찰상고려할 사항등 두가지잔군사항을 당신하려고 모인 전조선차석 및상석검사회의는 이일아홉시부터 고등법원회의실에서 궁본(宮本)법무국장임석하에 열렷다 먼저 고등법원증영(增永)검사장의 인사가 잇슨다음 회동원(會同員)의열석하에 명의로 황군에대한 감사전보를 치기로 결의하고 곳 본회의에 들어가 고등법원 산택(山澤)차석검사 등재로 자모사항 답신이 시작되엇스며 이회의는 사일까지계속된다

時兆社卅周年 創立祝賀會開催

월간지 『시조(時兆)』는 창간삼십년을 마저 부내 청량리정(淸涼里町)일번지 시조사에서는 삼일오후세시부터 동사강당에서 창간삼십주년기념축하회를 열기로되엇다

沖井大尉告別式

재작년팔월 시흥군서이면안양리(始興郡西二面安養里)로부터 출정하여이래 북지에서 전전중 지난유월육일 산서성평육현(山西省平陸縣)부근에서 명예의전사를한 고포병대위 충정국치(沖井國治)씨의 고별식은 시월이일 오후한시반부터 안양소학교교정에서 군사령관대리 서야중좌(西野中佐)감자(甘蔗)경기도지사이하 관민궁직자와 고인의출신교 용산중학교(龍山中學校)직원생도 이천여명참석하여 엄숙히거행하엿다

"金長鼓"混紡 販賣內容調查

全朝鮮百貨都賣商에照會

本町署에서違反事實追及

본정서 경제게에서는 최근전조선 백여군데 면포중간도매상에게 면포 원사매상(元卸賣商)의 단체인 경성동맹회(同盟會)로부터 금장고(金長鼓)표 혼방면포를 떠맛기어서 사입이 업는나하는 조회를 보냇는데 이것은 생산지인조선 방적의 금장고표 면포가 잘팔리지를 안흠으로 동맹회에서 다른면포를 팔때에금 장고표까지 사야한다는 조건을 부처서 소위포합(抱合)판매를한 혐의가 잇서서 조사하는것으로 이것이 만일사실이라면 동맹회원의일부는 조선물품판매가격취체규측위반으로 처분을 밧게될것으로 각지의 회답은 매우주목되고잇다

딱총

요전번 부산 부회원 삼십육명, 유죄로결정 공판에……

○ 명예를 어드려다, 전과(前科)를 어들모양

○ 아편밀조하던 지나인남녀 스물한명을 검거

○ 인제는, 저히나라서도 못하게하는일이야?

○ 서울은 삼곱절이나 커진다。

○ 생활도 삼곱절이 늘어야 할텐데……

曆

▲十月三日(火曜日)陰八月二十一日 ▲干支 癸酉 ▲日出 午前六時二十六分 ▲日南中 午後零時二十三分 ▲日入 午後六時十六分 ▲晝間 十一時四十六分 ▲月出 午後九時九分 ▲月入 午前十時三十八分 ▲滿潮(仁川) 午前七時二十分 午後七時五十分 ▲干潮 午前一時二十五分 午後一時四十分

…今日…天氣…晴時時曇…

堀口對笛木戰 珍風景

審判에게"突擊"

【東京】文雅譜男에게惜敗한 피스톤堀口選手는 雪辱의날을기다리며京城府中에잇던 지난廿九日午後六時부터 日比谷公會堂에서 强豪笛木選手와 十回戰을擧行한바 笛木猛烈히反抗하여 攻勢에나아갓스나 堀口依然히對戰하며 左右突·훅크를連打하여 笛木그로기ー되어 八回에 훅크를빼디ー에마저 코ー너ー에 따운되자 笛木는 低打를主張하엿는데 審判中村氏 듯지안허 카운트소리는 笛木의KO를宣言하려할즈음에 八秒를지나서 再起한笛木은堀口에게突擊하는줄만 아럿더니意外로審判中村氏에게 달려드러 右스윙을두루자 솨우스포ー로强打 中村氏의右목크는 다음에 보기조케 笛木의顔面에 命中하여 링우에는 처음보는 珍風景이 되어 審判은 笛木의反則勝으로되엇다

普成小學勝利

對西氷庫小學戰

京城府民體育日第三日…選拔小學蹴球戰인 普成小學對西氷庫小學戰은 三日午後三時三十五分부터京城그라운드에서 片茂英(主)申世均、金再哲(線)三氏審判下에 普成킥어프로 開戰된바 前半에 普成의 正確한패스로 十五分에 RI李元世의 크린꾯으로 一點을先得하여 意氣揚揚한데比하여 西氷庫軍은 多少 元氣壓倒되니 普成軍이 一點을 리ー드한채前半을마치고 後半에들어가 西氷庫軍이 後半에 普成軍에게 一點을 挽回하려하엿스나 不振하여 [illegible]分에 普成RI李元世의 [illegible]으로 一點을 加하여 前半에 一對 後半에 一點으로 結局 普成이 優勝하엿다

普成2(1…0 1…0)0西氷

【西氷庫】 [illegible]

【普成】 [illegible]

普勝5 京商4

京城府民體育日第三日…中等學校野球決勝戰인 京商對普勝戰은 三日午後四時七分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하엿는데 戰績은 다음과갓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京商	0	0	0	3	0	1	0	0	0	4
普勝	0	0	0	0	5	0	0	0	0	5

◇投捕…京商=(佐野、四宮)普勝=(村上、山田)

宋、孫組優勝

府民庭球大會

京城府民體育日第三日…府民軟式庭球戰은 三日午後四時半부터

【準決勝戰】 府總(沼今 田村)4…2 府總(赤羽) [illegible] 信遞(濱 田島)4…3 府總(吉下) [illegible] 實專(秋嶺 根)4…1 鮮金(金川 傳仁人)

【決勝戰】 府總(宋孝得 孫觀云)4…3 府總(沼今 田村) 府總(宋孝得 孫觀云)4…2 信遞(濱 田島)

京畿陸上代表

朝鮮神宮體育大會 各道對抗의 京畿道軟式庭球代表는 既報한바어니와 陸上競技代表는 다음과갓다

▲監督 鄭商熒 ▲主將 金寬羽 ▲百米 上水(普成) 黃德鉉(普中)李寒澤(養正)▲四百米 白駿貞(培材)高主復(養正) 田弘善(養正)▲千五百米 吳奇燮(京城)李寅和(徽文)金鍾俊(培材)高鍾俊(京城)孫基禎(培材)▲五千米 金銀何、金應龍、申湖榮(以上京中)▲障碍物競走 黃鍾哲、高主復、白駿貞、李東濟、田弘善、英、小五、[illegible](以上京商)▲走高跳 朴昌伯(徽新)韓貞洙 崔翰秀(培材)李東興(培材)▲幅跳 [illegible](仁商)橋本(仁商)▲砲丸投 金寬羽(漢水)村谷(仁川)▲手榴彈距離投 金萬禎、金鍾彰、大葉、吉村▲神宮參拜 金炳成(景中)李水澤(養正)安鳳珍(養正)吳昌濟(培材)林秀俊(養正)李商稼(培材)

수미運動

▲卓球=第十五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日本式女子卓球競技 午前十時 朝鮮日報社大講堂 觀覽料卄錢、學生十錢

旱害救濟義捐

本社寄託分

부내한강통(漢江通)십팔번지천야(淺野)세멘트회사 『숲레ー트』부 조선인공장원일동은 이일본사를 견학하러왓다가 중남조선재지이재민을 위하여 사원사십전을모아 구제의연금으로 본사에 기탁하엿다 이외에 이일 다음과가튼 의연금을 기탁하여왓다

▲二十四圓四十錢 平北陳坪本社陳坪支局 ▲二十圓 安岳天主敎會(本社安岳支局經由)

(朝鮮社協直接受入分)

▲金二千圓 南朝鮮總督 ▲二千圓 大野政務總監 ▲一千圓 愛國婦人會朝鮮本部 ▲一萬圓 高梨合名會社 ▲一千圓 京城로ー타리俱樂部會員一同 ▲二百圓 南總督御夫人 ▲一百圓 大野政務總監御夫人 ▲三千圓 朝鮮殖産銀行職員一同 ▲三千圓 鐘淵毛織會社內 朝鮮全繊維絲布元卸賣業組合 ▲一千圓 이즈미야商店與搭吉 ▲五百圓 京城府三角町六八 金益洙 ▲一百二圓 宮崎縣霧島親交會 ▲十六圓六十錢 宮崎市民協會靑年團 ▲五十三圓 宮崎縣高鍋國進中會 ▲十三圓四十錢 並木城村川原縣電工事場 ▲十三圓四十錢 淺野세멘트會社職工一同 ▲四十圓 鹿兒島縣川邊郡 枕崎內鮮融和會 枕崎古物商組合 ▲十圓 福岡縣粟粜鑛業所九棟組內在住半島人 ▲十圓 東京市 岡野順吉 ▲十四圓八十錢 平安南道南串小學校職員生徒一同 ▲二十三圓三十五錢 宮崎市東民協會靑年團 ▲百二十八圓四十五錢 神奈川縣協和會橫濱支部山手分會 ▲千圓 京城府本町 朝鮮開拓株式會社 ▲三百圓 朝鮮金融組合聯合會本部並京畿道支部職員一同 ▲五十圓 中西三商會 中西四郎 ▲五十一圓七十七錢 京城高等商業學校職員一同 ▲二百圓 京城府醫師會 ▲二百八十一圓 神奈川縣協和會三崎支部 ▲三十圓 山口縣玖珂郡麻里布人絹町 崔相圭 ▲五百圓 和闕國名譽領事 富來祥 ▲百圓 翠月會 ▲百三圓七十七錢 京都府協和會川端支部 ▲三十圓 京都府協和會山科支部 ▲三圓四十五錢 新義州保護觀察所 ▲二百圓 京城地方法院內 京城辯護士會 ▲八圓八十八錢 朝鮮總督府氣象臺京城出張所 ▲累計 二萬六千七十圓四十七錢也

여름옷빠라두는법

스、파던지 人絹이던지 モノゲン으로 洗濯하면安心하고來年까지 간직해둘수 잇습니다 때는完全히 빠지고、얼눅이안나고 빗갈도날르지안코 無論、감도 傷하지안습니다。

內地定價 一·三〇 ·五〇 ·七五

(洋服店專賣品)

石鹼質を含まない純粹の新洗劑

モノゲン 모노겡

ゲンノマルセール石鹼本舖 第一工業製藥株式會社

M-9-20

好評의頭腦藥

爽快한頭腦가되는 ノーシン 노ー신

頭腦가흐릿한것……例를들면、머리가아푸고、무겁고、或은頭腦가疲勞해서 흐리멍멍할때는곳 ノーシン을 잡서주십시요。그래서 速히 頭腦의不快를一掃。서 淸明한中秋의 明月과도가튼 참으로 爽快한頭腦를 도리켜주십시요。

効力이速하고、安全……

ノーシン은 頭痛과頭重을速히 멋게함과同時에腦髓와頭腦의 疲勞를恢復해서、머리를明快케하는獨自의藥効를 아울러가지고잇는것입니다。 그리고 常用하면神經의榮養을조케하고、心臟을强補하는 숨은効果가잇스므로、每日執務와工夫、家事等으로頭腦를酷使하는現代人必需의頭腦藥으로서 자못好評입니다。

主効 頭痛、頭重、腦疲勞、上氣、眩暈、宿醉、舟車의醉

三十錢·五十錢·一圓

★어느藥店에나잇습니다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中部版

楊州郡各消組 一齊히解散式

【楊州】의정부소방조는 대정육년에 설립이래 이십여년간 가진 풍상을 거처 오늘날에는 제삼부로 나누어 소방조인원일백이십여명과 기타방호단원오십여명으로 비상시에당하여 만전을다하여든 당국에서는 이를더한층강화하기위하여 종래의소방조와 방호단을해산하고 경방단(警防團)을 조직하게되어 지난삼십일 의정부신영시가에서 해산식을 거행하엿다 그리고 양주군내십이개소소방조가 삼십일 일제히 해산식을거행하엿다

赤痢患者가最多數 生凉後에도依然蔓延中 市內傳染病者數의三分之二

경성시내의 전염병 특히적리는 날이차저도 줄어들줄모른다 구월한달동안에 부내에서발생한전염병환자는 사백칠십오명으로 작년구월보다 일백칠십칠명이격증하엿는데 그태반은 적리환자로 삼백삼십삼명의 발생을보엿다 작년구월보다 일백오십삼명이부러 약갑절이나 마허섯다 적리에다음가는것은 지푸테리야로 육십칠명, 장질부사사십일명, 성홍열세명, 파라치부스열두명의순서로서 모두부럿고작년보다 주러든것은 파라치부스뿐이다

京南秋季淸潔日字

【京南】용산경찰서에서는 오는사일부터 칠일까지 경남일대에 추계청결을 시행키로 되엿는데각정일할은 다음과갓다

▲十月四日 三坂通、岡崎町、西界町、南營町一、二、三丁目、練兵町、古市町、漢江通六、七、八、九、一〇、一一、一三、一五、一六番地 ▲十月五日 榮町、京町、元町一、二、三、四丁目、大島町、淸水町、彌生町、錦町、新花町、山手町、岩根町 ▲十月七日 阿峴町、金湖、桃花町、梨泰院町、西氷庫町、東氷庫町、麻浦町、漢江町、普光町、孔德町、金湖町、玉水町、麻浦町、新孔德町、町東部、西部、龍江町、大興町、土亭町、鹽里町、玄石町、倉前町、唐人町、上下水色町、賢中町、新井町

永登浦警防團의 幹部等決定發表

【永登浦】영등포경방단 결단식은 십월일일오전세시부터 영등포소학교운동장에서 거행되엿는데 간부는다음과가치발표되엿다

▲團長 鈴木文助 ▲副團長 [illegible]川淸之助 金殷植 高橋[illegible] ▲第一分團長 木下榮 ▲副分團長 長田倉之助 杉本[illegible] 香[illegible]輔雄 ▲第二分團長 古部虎次郎 ▲副分團長 塚本源次 金福永 ▲第三分團長 大塚榮三郎 ▲副分團長 齋藤幸吉 [illegible] 中川幸一 ▲第四分團長 朴[illegible]德 ▲副分團長 今西[illegible]郎 [illegible]田孝 ▲特別分團長 [illegible]田[illegible]造 ▲副分團長 秋吉由[illegible]

砂糖三千斤買占 支那人食料品商奸計 綻露되어仁川署에서嚴調

【仁川】전시하에 잇서서 일반물자가 통제됨에따라 요즘은설당(砂糖)의 배급이 원활치못하므로 각식료품점에서는 설탕의기근지대를 마지하여 인천부내육십여곳의 과자 제조소에서도 일을 못하게되므로 이에 부내에잇는 설당배급자들은 내선각지에 외교원을 파견시켜서 설당의 매점(買占)등 암취인이느러가고잇다 지난십사일에는 인천부 미생정(彌生町)에잇는 지나인 식료품상 동화창(東和昌)과 동생성(東生盛)에서는 대전부 본정(大田府本町)에잇는 남부경평(南部京平)의 상점에가서 백설당 삼천근을 칠백육십오원오십전에 매점하여 인천으로가지고온 사실을 인천서 경제경찰원이 탐지하고 폭리를 보지안나하고 전기상점주인을 소환하여 목하엄중히취조하고잇다

城南팀에서優勝 全京城少年蹴球大會終幕

【京南】용산체육회(龍山體育會)주최와 본사경남지국후원하에개최한 제이회 전경성소년축구대회는 예정과가치 가을날 맑게개인 일일아침 여덟시반부터용산욱천(旭川)운동장에서 열두단체의 장엄한 입장식으로 막은열리엇다 식순대로 궁성요배황국신민서사랑독의 절차를 행한다음 회장이창성(李昌成)씨로부터 정중한개회사가잇고 성남체육회수장성수군부터 선서문랑독과 전년도 우승기반환식이 잇고 나자 상장까지 수여하고 심판장한학길(韓鶴吉)씨의 주의사항지시가 잇슨후 먼저 공덕정 효송(孝松)팀과 도화정신진(新進)팀으로부터 막은 열리기시작하엿다 벌부터 경기는 백열화하여 일은아침부터 구름가치모여든 수천관중들의 응원하는소리는 경기일대에서는 처음볼 [illegible] 호상전전을 전개하엿는데 결국 사대령으로 또다시 성남체육회팀이 우승의월계관을장악하엿다 당일각팀전적은다음과갓다

第一回戰績

○勝(得點) ×敗(得點)

○新進三 ×孝松二

○桃花三 ×[illegible]一

○[illegible]六 ×[illegible]○

第二回戰績

○新進一 ×南原○

○桃花四 ×[illegible]二

○城南二 ×工勵一

準決勝戰

○[illegible]一 ×新進一

○城南五 ×桃花○

決勝戰

○城南四 ×[illegible]○

(사진은 우승한성남체육회선수들)

京南四十九町內에서 失業者와窮民調査 龍山方面委員會總動員

【京南】경성부 용산방면위원회(龍山方面委員會)에서는 금년도판내사십구정내에산재한 세궁민의『카-드』조사와 실업자 토막불량주택등을 철저히조사하고저 일일부터 이십칠일의 전위원이 총동원하여 세밀히 조사를행하고잇는데 금년에는 륙히예년보다 다른지방으로부터 몰려든 세궁민들이 엄청나게만흠으로 큰곤란을겪그리라는바 담당구역의 위원씨명은 다음과가트며 일반은 주저말고 세밀히 보고해주기를 바란다한다

○龍山方面委員受持區域及氏名

▲三坂通 太澗和、太正培、工藤鐵夫 ▲岡崎町、錬兵町 齊藤三四郞 ▲桃花町二區 文志道 ▲麻浦町 崔亨植 ▲岩根町 [illegible] ▲山手町 金周鉉 ▲大島町 崔元順 ▲錦町 張柱煥 ▲靑葉町一、二丁目 馬鋼健 金龍培 ▲漢江通 椋本彥五郎 ▲京町 [illegible]德 ▲元町一、二丁目 出分喜四郎 ▲元町三丁目 松村巖三郞 ▲元町四丁目 淸水町 李昌成 ▲西界町 黃義三 ▲[illegible] 富居有次郎 ▲桃花町二區、彌生町 金章烈 ▲桃花町(山) 帖佐嘉六郎 ▲孔德町、新孔德町、鹽里町 趙[illegible]昇 ▲龍江、土亭、大興、玄石、新水町 金熙煥(食前、新井、賢中、上下水色、汝矣島 金東寶 ▲西橋、合井、[illegible]、唐人町 徐丙穆 ▲東氷庫、西氷庫、普光、漢南 李鳳烈 ▲梨泰院町 成俊

各地秋季運動會

楊州小學校

【楊州】양주심상소학교사십주년기념대운동회는 지난시월일일시정기념일을복하여 동교대운동장에서 거행하엿다 당일은 구름한점업는 가을날씨로서 아침부터 모여드는학부형자매는 무려오천여명에 달하여 운동장내외가 인산인해를이루엇다 정각아홉시부터 뇌립(瀨立)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시국색이풍부한『프로구람』은 순조로 진행되엇스며 그중가관공서대항『리레-』와 가정부인의 경기는더한층인끼를끄럿다(사진은 오륙학년여자의유히)

體育運動會

【長湍】장단체육주기 운동회는 지난삼십일에 장단공립동소학교 운동장에서 성대히개최하엿는데 당일각청년단과 각리부락선수들은운동을 기하여영판을 획득하고저 장쾌한 경기를 진행하여 근년희유의 성황중에 종료되엇다 그런데 당일우승한 성적은 다음과갓다

一、마라손(二里往復)一等吳奇榮 二等朴[illegible] 三等[illegible] 四等金興[illegible] 五等[illegible]

二、部落리레-決勝 一等東場里 二等德山里 三等西場里

三、官公署리레-決勝 一等長湍郡廳軍 二等長湍驛軍 三等東小學校軍

(사진은 優勝한東場里軍)

長湍東小學校

【長湍】장단동소학교추기대운동회는 예정과가치 지난삼십일오전아홉시부터 동교교정 에서개최하엿는데 팔백여명의 천진난만한아동선수의입장 삼태교장의개회사로써 운동경기는 시작되엇다 경기는 모두가 시국에상응한위신잇는것으로 각아동들은 서로협중의패기를 나타내여서 인산인해의 수천관중을 도취케하여 자못성황속에 맛치엿다(사진은 長湍東小學校運動會光景)

城湖小學校

【烏山】수원군 성호심상소학교(城湖尋常小學校)에서는 지난삼십일오전여덟시 삼십분부터 교정에서 추기대운동회를 수만호관중의 박수갈채리에 성대히열엇섯든바 과한부형으로 자지기부가잇섯는데 씨명과금액은아래와갓다

◇寄附者芳名

▲朝鮮運送株式會社烏山代行營業所 ▲烏山酒類販賣株式會社 各十圓 ▲烏山商事株式會社 長林[illegible] ▲京畿[illegible]荷扱所 各五圓 ▲李[illegible] ▲烏山第二金融組合 ▲鄭鋼[illegible] 各三圓 ▲金長容 ▲徐康建 ▲姜[illegible] ▲金英泰 ▲李禮九 ▲月野니가 ▲元昌本 ▲李炳昌 ▲曾明[illegible]院 ▲朴勝斌 ▲烏山金融組合 ▲池乙用 ▲李[illegible]宇 ▲金[illegible]基 ▲姜仁成 ▲伊[illegible]榮 ▲金鍾旭 ▲全甲順 ▲崔鳳[illegible] ▲金[illegible] ▲朴富山 各二圓 ▲竹田新聞[illegible] ▲孔錫[illegible] ▲朴濟昌 ▲崔[illegible]烈 ▲張斗[illegible] 久台 張斗鉉 朴浩植 李與淳 張啓俊 金正敎 金俊圭 金在雄 崔樂英 朴在龍 李豐來 白南光 沈[illegible] 姜鍋信 朴大[illegible] 殷寶成 姜[illegible]煥 金永培 金大[illegible] 文忠植 朴景[illegible] 安斗熙 李鳳圭 金[illegible] 李殷庚 具然益 沈相浩 孔[illegible]植 張[illegible] 元益玄 [illegible]福和七 禹元榮 朴商[illegible] 徐鳳河 [illegible]炳[illegible] 金日煥 李[illegible] 林[illegible] 李石 [illegible]炳俊 鄭[illegible]永 金[illegible] 李命[illegible] 金德[illegible] 各一圓

儒林側十餘名 麗水署서檢擧 警察은極秘裡嚴調

【麗水】지난이십오일밤 당지경찰서에서는 유림측(儒林側)모모를 십여명을검거하는동시 가택수색을한후 다수의서류를 압수하고 방금엄중한취조를 개시하고잇는데 사실내용은 아직비밀에부치고잇스므로 알수업스나 일반은 사건의전개에대하여 주시하고 잇다한다

海軍機命名式 來八日淸州서擧行

【忠北支社發】충북도민은 지나사변발발이래 각종 헌금을하여 총후국민으로서의 적성을피력하고잇는데 금년팔월까지에 도내각처에서 모여진헌금은 [illegible] 충북보국호 [illegible] 주간중 애국주간동안에 헌금들을 모운것으로 해군기를헌납하엿는데 오는팔일오전열시부터 청주비행장에서 명명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는바 당일은공원기독대도 청주상공에비래하여 축하비행을할터이라한다

水稻適期刈奬勵 地主업서도刈取無妨 開豐郡産米改良의萬全策

【開城】개풍군은 생각한만발때문에 이앙시기가 일치하지안흔관계로 베비는시기도 자연일치를기할수업는것은 사실이지만그러라고 적기에刈(適期刈取)를안케하고 그대로 방임해두면품질이 극히저하되고 또는동할(胴割)이만허지는등 산미개량상상당히 악영향을 줄것으로예측한동군농회에서는 군내산미의 성가에 손색이업게하고저 판내십사면면기수를 소집하여 타합회를개최하는등 적당한 시기에벼를비도록 만전의노력을 다하고잇다 그런데그기한은 다음과가치결정하엿다 그리고 만일이기간안에 지주측에서 입회치를안허 벼를못비는 경우에는면직원이나 농촌진흥회장의 입회로써도 벼를비여도상관업게 되어잇다

稻作適期刈取期間

▲中生銀坊主 自十月一日 至十月十日

▲改良都玉 自十月五日 至十月十五日

龍山警防團 發團式盛大

용산경방단(龍山警防團)의발단식은 일일오후세시 원정소학교교정에서 요지방공사령관(要地防空司令官)경기도지사 경성부윤등을석하에 성대히 거행되엇는데 단원은 일천오백명의 다수이엿고 단장에는 이달사웅(伊達四雄)씨가 추대되엇다

原因모를自殺屍

【烏山】지난삼십일오전영시삼십분 수원군성호면서리(城湖面西里)서태산(徐太山)이란자가 동네뒷산 대추나무에 목을매고 죽엇는데 이급보를받은 오산경찰관주재소에서는 공의최해봉(崔海鳳)씨를 대동하고 현장과시체를 검시한결과 자살로판명되엇스며 자살의원인은 생활난인듯 하다고한다

黃泉길도"스피드" 開城에靈柩車初登場

【開城】칠만인구를포용한 개성부에는 일년에 황천의객이되는 사람이 일천여명이나되는데 그중발상은 화장장아니면 공동묘지로가간다 이들의 가난한장례는 영구차를운반하면 가장 간편할것이라고 일반식자간에는 요망해온지오랫스나 보수관념이 강한 개성에는 아직 그실연을보지못하엿던바 드디어 시월중순부터 부내 고려자동차부(高麗自動車部)경영으로 영구차를운전하여 황천길에도 [illegible] 도모키로되엇다

豆腐한모九錢 十錢밧고始末書

부내에서 판매하는두부갑은지난칠월십오일 도당국과 두부상조합간에 협정이되어 자숙가격으로도 한모에구전식으로 잇섯는데 최근부청서판내에서는 대개십전씩을 밧기로되어 서경제계에서는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 부용(芙蓉)두부점의 위반상점에서판부터에서 시말서를 밧고 다시구전에팔기로하엿다

各町總代를召集 義捐金募集着手 仁川府의旱害救濟策、

【仁川】금년은 남선의 한해로 인하여 각지에서 한해대책에여극적 노력을하고잇다 이에인천부에도 인보상조의 정신으로한해구제의 의연금모집에 힘쓰고잇는데 인천부에서는 수일내로일반부민으로부터 한해 의연금모집을 하게되어 부청회의실에각정회 총대를 소집하고 한해대책협의회를열고 여러가지 의견을교환한후 의연금모집을 적극적으로 하리라한다

長安、雨汀各警防團 委員等을全部決定

【三槐】지난일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소방단체를 해산하고새로 경방단을 조직하기로되어삼귀에서는 지난 이십팔일에종암수재소에서 역원을 다음과가치 결정하엿다

雨汀警防團役員

團長 金鎭昌 副團長 金洛斗 金[illegible]泰 警護部長 金光圭 消防部長 金在住 警護班長 李相球 文[illegible]燦 消防班長 李相俊 車洪圭

長安警防團役員

團長 徐丙榮 副團長 韓[illegible]澤 李[illegible]根 崔[illegible]政 警護部長 崔浩[illegible] 消防部長 金[illegible]圭 警護班長 朴[illegible] 沈在[illegible] 消防班長 李正煥 尹[illegible]

雨汀、長安兩小校運動

【三槐】우정, 장안(雨汀、長安)두공립소학교 이천여어린학생의손꼽아 기대리는 추기대운동회는 좌기일정대로 양학교에서는 운동회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長安公立尋常小學校 十月四日(水)午前九時

雨汀公立尋常小學校 十月七日(土)

고무신과석냥갑 最高小賣價格四日發表

◇…일본된장京畿道價格은今日發表

기난이십팔일부로 고무신, 일본된장, 석냥에대한 총독부물까위원회의답신안(答申案)이 발표되엇스므로 경기도에서는 이답신안을중심으로 경기도로서의 최고판매가격을 검토중이엇섯는데 그결과우선 이일부로그중일본된장에대한 최고소매가격을 결정하여 즉일도령(道令)으로발포실시하엿다

내용은 가격에잇서서는저번발표된 위원회의 답신가격을 그대로 답습하여 [illegible]된장, [illegible]장모두 한목메에 구전으로되엇는데 다만 답신가격과 다른점은답신안에잇서서는 경성부의 가격으로 한정햇던것을 이번에는 경기도내전체에 일률적으로 구전으로제한한것이다

그리고 석냥에 대해서는 매일총독부에서 전조선소매가격을 결정발표할터이오 고무신에 대해서는 경기도내의 최고소매가격을 도령으로 발표실시하리라는데 그가격은 저번 물까위원회의 답신안을 그대로답습하되 도내의 지방가격에대해서는 부의가격에 운임과기타 부비를 가산하리라한다

朝鮮서最初로 上層氣象觀測

【仁川】총독부기상대(氣象臺)에서는 지난이십구일부터 조선서처음으로 상층기상(上層氣象)의관측을 실시하기로되엿다 이사업의실시를하기위하여 판측계주임 무석(武石)기사는 지난구월십사일 동경에출장하여 중앙기상대(中央氣象臺)와 타합을하고 이십팔일에귀임하여 이십구일부터 실시한것이데 이관측은 기구(氣球)에 달린 기계를 상공에 올려서 그기계로부터 자동적으로 무선전파로인하여 방송을하게되면 이를기상대에서 수신하여 각각그높이의 상황을판측하는것이다 그러데 만약 이기계가 지상에 떠러진것을 발견한자는 즉시 주운자리와시간을 기록하여서 기상대에반송하여주면 반송자에게 사례금으로 금일원을 지정하리라한다

始政記念式擧行 一日、仁川府에서盛大히

【仁川】신동아건설의 시국하에 마지하는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은 지난일일로써 만이십구년째 이므로 병참기지인 인천항에서 이날을 의의잇게 마지하여 이날오전열시에 인천부에서는 시정기렴식을 거행하고 영정(永井)부윤이하 판민유지사백여명의 참렬로써 성대한기렴식을거행하엿다

仁川警防團 發團式擧行

【仁川】인천방호단도 기보한바와가치 지난삼십일로써 해체되고 그뒤를이여서 지난일일오후한시부터 인천경방단의발단식을 부내도산정(桃山町)공설운동장에서 고(高)경기도경찰부장임석아래 거행 하엿다 단장은 영정(永井)부윤에게 배명 되어 이뢰(二瀨)서장이하 서원과 경방단원 다수출석코 이뢰서장으로부터 단원에대하여 각각사령을교부한다음 경찰부장으로부터 영정단장의인사를마치자 지사대리로 고경찰부장으로부터 고사가잇섯스며 이뢰서장훈사가잇슨후 내빈대표로 무전(武田)세관장의축사와 단장의답사로써 발단식을마치엿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義州支局 位置 平北義州邑內 變更 昭和十四年九月十九日 支局長 朴英信 右新任 支局長 李曾榮 右解任

寧海支局 位置 慶北盈德郡寧海市 變更 昭和十四年九月二十八日 支局長 李圭煥 右新任 支局長 金沅鎬 右解任

謹告

順安支局 記者 宋武燮 右新任 順安支局 白

全北支社 會計 金京德 右新任 全北支社 白

長項支局 記者 李福男 右新任 長項支局 白

夢金浦分局 總務 尹宗謙 右新任 夢金浦分局 白

吉林支局 總務 吳永祿 右新任 吉林支局 白

濟州支局 記者 朴文化 記者 裵倘能 記者 金京鳳 右解任 濟州支局 白

懸賞 ネオ肝精의 健康標語

擧國總力戰에邁進하고잇는 이때 國民體位의向上이야말로 가장 痛切緊要한問題라고아니할수업습니다。貧血、結核의 豫防治療劑로서 虛弱體質의改善强化劑로서 泄瀉가나지안코 胃腸을害치안는 먹기쉬운 理想的인 肝油精劑로서 적으나마 國民保健上에貢獻하고잇는「ネオ肝精」의 本舖가健康思想普及의一端으로서 玆에 全國의여러분으로부터 健康標語를 募集하는바입니다 만히 應募해주십시요

用紙 官製葉書에限함 一枚一句 (一人이몃장을應募해도조흡니다)

內容 戰時國民의 體位向上에는 虛弱體質의改善强化貧血結核 腺病質의一掃가 急務인것等 健康增進에 必要適切한말을 簡潔平易하게 表現해주십시요 (그리고ネオ肝精의特長 又는 效果를加入하는것은應募者의自由입니다)

字數 二十字以內 (楷書로明瞭히써주십시요)

締切 昭和十四年 十月十五日限

送先 大阪市北區西堀川町四八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健康標語係

審査 ネオ肝精販賣元 藤澤友吉商店 學術部

發表 昭和十四年十月中 (本紙上에)

版權 入選作品의版權은一切弊社에屬합니다

賞金

一等 (一句 一名) 壹百圓 (公債事變)

二等 (二句 二名) 五拾圓宛 (公債事變)

三等 (十句 十名) 拾圓宛 (公債事變)

佳作 (百句 百名) ネオ肝精一本宛 (二七〇錠入)

먹기쉬운肝油精劑

ネオ肝精 (네오)

鱈肝油・牛膽汁配合 (發明特許)

ネオ肝精의 五大特長

❶ 單一肝油로는어들수업는綜合的藥理効果를發揮함

❷ 配合成分의協力에依하여造血機能을亢進하고貧血을治療함

❸ 結核菌을爲始하여諸病原菌에의抵抗力과免疫性을昻揚함

❹ 胃腸機能을强化함과함께脂肪의分解消化를佳良케함

❺ 肝油特有의臭氣及曖氣가업고泄瀉가안나서婦人小兒에도愛用됨

適應症 惡性貧血・續發性貧血 其他貧血諸症・肺結核 肋膜炎其他結核性諸症 夜盲症・佝僂病其他ビタミン缺乏症・腺病質 虛弱質・慢性胃腸衰弱 過勞・重病恢復期等

藥價低廉 錠劑 二七〇錠 二・〇〇 一〇〇〇錠 六・〇〇 三〇〇〇錠 一三・〇〇

藤澤 發賣品

見本進呈 ネオ肝精試驗用見本及冊子"新榮養讀本"無代進呈 (新聞名記入하여下記로申込하시요)

發賣元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東京市日本橋區本町・京城府西小門町・奉天市加茂町

NK1408

長篇小說 사랑의水族館 【53】

金南天 作 鄭玄雄 畵

雙魚陂花(一)

차가 떠날시간은 오분 밧게 남지 안헛다。망호는 가방안에서『코댁스』를 꺼냇다。두사람은『폴래폼』에서 사진을 찍고자 하것이다。

『경히씨 기둥 아프로 나서서요。』

하고 망호는 사진기계를 열어서 들고 경히에게 설명한 위치를가리킨다。

경히는 한편에 엽차를끼고 기둥아페서 망호편을 바라본다。그대로 기처하고서서 한장을찍엇다。

『인제는 재미나게 한장 찍읍시다。마음대로 포-즈를 가지서요。』

이러한 망호의 요구에 경히는 바락 바락 웃더니『핸드빽』을 들지 안흔 바른손을 저의『스포-츠·햇트』에다 부치고 군대식으로 경례를 하는 몸매를 취한다。그러나 입술이 우슴에 흐려저서 엄숙치 못한 변저이다。망호도 광선과 위치를 고려해 가며 경히의 전신을『코댁스』에 올겨너헛다。

『인제 내 한장 찍어 올리기 은』

하고 경히는 망호의 아프로왓다。그는 사나이의 손에서 사진기게를 바다들고 잠시 구소를 살펴 보앗스나 이내 그것을 눈에다 갓다 대엇다。

그러나 망호는 자리에 서지안코 차안으로 들어가서 경히한테서 바든 꼬츨 들고 나왓다。

꼿다발을 들고 한장을 찍엇다。

『그꼬츤 잠시 절 주서요。

그리구 이번엔 나치스식으로 경례를 하서요!』

망호는 꼿다발을 경히에게 맛겻스나 그가 원하는대로의『포-즈』를 취하지는 안헛다。그는 모자를 바른손으로 노펴서 들고 약간 우어보엿을 뿐이엇다。

그때에 찌르륵하고 엽차가 떠난다는 전령이 울려왓다。전송을 나왓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오고 떠나는 사람은 승강대와 차창에몰려섯다。사진을 찍노라고 정신이 팔렷던 경히도 출발의 전령이 들려 오는것을 심상하게 들을수는 업섯다。가슴은 두근거리고 눈 시울이 떠거운것 가튼 생각에 그는

『어서 차에 오르서요!』

하고 망호에게 권하여 본다。

망호는 사진기게를 바닷다。

그래도 차에 오르진 안헛다。

『시끄러도 사진 현상할수잇서요!』

하고 경히는 될수록 차가 떠나기 전에 마음을 딴데로 써보려고 노력한다。

『현사진 만드노라고 안설이잇슴니다。』

『잘 되건 한장씩 보내 주서요。』

하고 경히는 말한다。

차는 기적을 울렷다。그때에 망호는 경히에게 인사를 하고 승강구에 올랏다。

차는 욱즉이기 시작한다。경히는 망호의 얼골만 처다보며 차가 욱즉이는대로 저의 눈을 이동하엿스나 차가 속력을내려고 할때엔 발을떼어 기편차의가는 방향을짜차 걸엇다。눈은 욱즉이지안코 망호를 쪼차간다。차는 속력을내엇다 경히는 뛰엄뛰듯이 몃발자국을 더 옴겨 보앗스나 차의 속력을 이기지못하여 그는『폴래폼』에발을세우고 바른손을노피들엇다。자꾸만 적어가는 망호가 꼿들지안흔 바른손을 처들어경히의 전송을받고 잇섯다。차는 또한번 기적을 울리고 전망대의뒷고리를 끄며서 역 구내를벗어나고 그리고 망호의 그림자는 조그만 점처럼 남앗다가 그대로 보이지안허젓다。

한참동안 경히는 그자세대로 서 잇섯다。몸을 핼돌려 다른 사람의 뒤를따라 출구로향하는데 입구로부터『플래폼』으로내려오는 어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낫다。

『경히씨 아니서요、』

하고 층층게를 내려 오던 양장한 젊은 여자는 그를 불럿던것이다。

경히는 깜짝 놀라 저를 부른 사람을 처다 보앗다。

『아니 어전 셈이서요?』

하고 경히는 그 여자가 층층게 우에 서잇는 까닭을 뭇는다。

『지금 떠나는 노조미에 아는이가 가서 전송을 나왓섯는데 시간이 느젓서요、』

하고 층층게에 선채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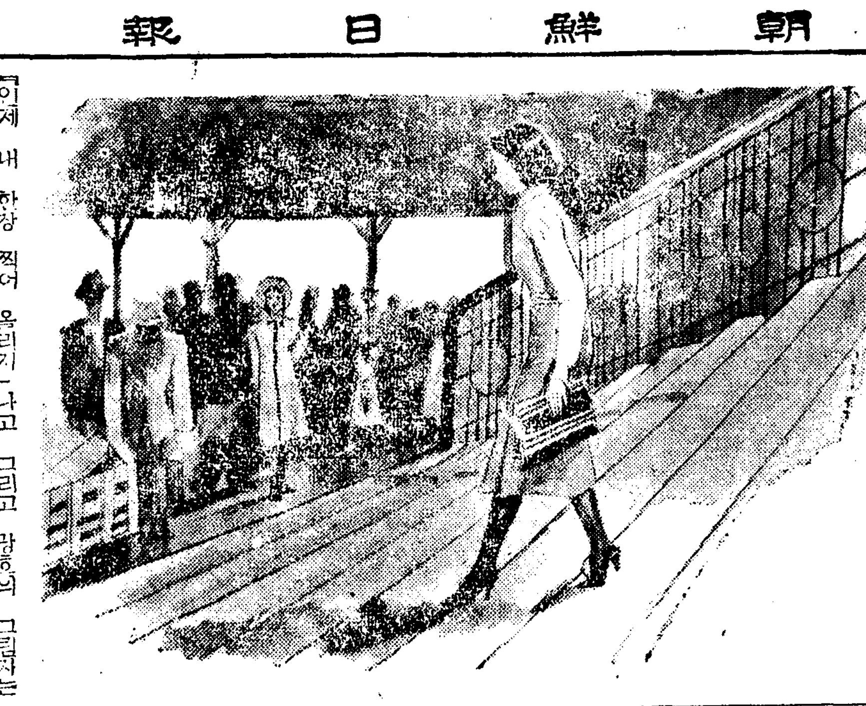
『아이 그걸 어떠캐!』

하고 제일처럼 딱하게 생각하며、

『나두 노조미로 가는 이가잇서서 나왓섯는데 시방 떠나지 안헛서요。인제 뭐 별수 잇서요 떠나 버린걸、자 내려 오서요。출구로 그대로 나가야지 뭐』

하고 경히는 층게에서 내려오는것을 기다렷다。

두 여자는 나란이 서서 출구로 향하는 층층다리를 올라가고 잇섯다。



新劇의投機化

신극(新劇)이 한편 흥행극(興行劇)으로하여금 오래전부터 경멸해오고 멸시해오던 은혜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흥행극 자체가 조금도 관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뛰어넘기는커녕、도리어 그들 관객에게 교태와 아양을 부림으로서、짐짓 값싼 오락의 도구로서 자처하엿슴에 잇섯다。그러므로『우리들의 신극은 경제적으로는 빈약하여도 예술적으로는항상풍부하다。』하는것이 언제나 그들신극인의 자랑이엇고 자긍이엇다。 그러나 이가튼 자랑이나 자긍도 오늘의 신극의 무대인들은 살뜰히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그들의 이론을 망각하고서다만 수지(收支)가 맛는무대만을 꾸미고 상연하기 쉬운것(?)각본과 장치만을 골르기에 열중한것을볼때、과연금석(今昔)의 감이 아니 일어날수가업다 이제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잇는 신극은 지방순회공연에서 흑은 소극장공연에서 어든 경험만으로도 함부로 흥행극을라기할 튼튼한 지위를 보장하고버티기에는 곤란하게 되엇다。오늘의 신극이 다시금 그들의 점잔흔 체모를회복하고따라서、일반의 지지를 바란다면 그들은 하루바삐 그들의 투기적(投機的)인 생각에서부터 해방되어야한다 ……(文喜)……

動亂의歐羅巴에서 "故鄕의춤"추는崔承喜

伊太利巡演을마친後今年末에歸國

『파리-』를 비롯하여 구라파의 각나라 중요도시만을 추려어 육십여군데서나 공연하기로 결정되엇던 최승희(崔承喜)여사의 소식이 이번 제이차구주대전으로 말미암아 알길이막연하던바 돌연 지난달 이십구일에 그의오빠 최승일(崔承一)씨에게로『로-마로 갑니다。안심하세요。대사관으로 편지하십시요。』라는 전보가 날러들어와 비로소 안심하게 되엇다함은 이미 본보석간 이면을 통하여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제 여사가 그동안『파리-』혹은 독일『베를린』에서 어든칭찬과 인끼를 대강 소개하면 여간한것이 아니엇다。동양의 일류 무용비평가들은 모두 붓을 가즈런이하여『최승희여사의 무용은 거의완전에 가깝다。더구나 그의 경쾌하고 명랑한"코리안·땐싱"은 동양에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만흔 교육을 주엇다고 생각한다。그의 발달한 육체는 무용가로서 가장 이상적인 체격이라고 밋는다——』 어가지 경탄의 찬사를 보내어 최여사의 찬란한 무대를 더욱 꼿다웁게 장식하여 주엇다는사실이 구라파의 각신문잡지에보도되어 더한층여사의 활약을 호화롭게 만들고잇다。 최여사는 방금 이태리(伊太利)『로-마』로 향하여、그곳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잇다는바 이태리 각도시의 공연을 마친후 느저도 금년말경에는 조선으로 돌아올 모양으로서 만이 년만의 귀국이란 과연 어떠

問答

【問】 드디어 치켜 올린것은 누구냐?

(畵面의【問】은……『파데레프스키』와『키-퓨라』의다음곡목은——)

【答】 반독반소이중주(反獨反蘇二重奏)

"故鄕의춤"을추는崔女史의"포-즈"(獨文誌『다스·마가친』에서)

國際映畫博物館 第一次會議開催

【紐育發同盟】영화(映畫)를통하여 세계각국의 친선을도모하자는 의도아래에서 창설된『국제영화박물관련맹(國際映畫博物館聯盟)』의 제일회 회의는 최근『뉴-욕』에서 세계각나라 십이개국대표가 참가하여 개최되엇다。이『국제영화박물관련맹』은『런던』영국영화도서관(英國映畫圖書館)、백림(伯林)독일영화도서관(獨逸映畫圖書館)、『파리-』의 불란서영화도서관(佛蘭西映畫圖書館)、『뉴-욕』의 근대영화기술박물관(近代映畫技術博物館)등、기타 세계각국의 영화도서관과 박물관 참가아래의 지금으로부터 수개월전에 설립되어 본부는『파리』에잇스며 그목적으로하는바는 세계각국의 영화박물관사이에잇서서 영화정보(映畫情報)와 및 신고안(新考案)을교환하는동시에 아직 영화박물관이 설치되지안흔 각국에 대하여 그창설을 촉진하자는것으로서 설립이래 아직시일은얏흐나 이미 수만흔 업적을 남기고잇다 제일회 회의에잇서서는 주로 교육과 역사적 귀중영화의국제적교환을 용이하게 하자는것으로서 각국정부에대하여 수입관세(輸入關稅)면제를 요청하자는건에 대해서 거듭토의가되엇는바 미국은이미 이가튼영화에 대하여는 세금을 밧지안코 수입을 허가하고잇스며 영불양국도 가까운장래에 잇서서 허가할 방침이라한다 이제 이번회의에 참가한나라를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일본 ▲이태리 ▲부라질 ▲아르젠틴 ▲칠리-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珍聞集

世界에서第一 노픈『레스트랑』

【『로-마』發同盟】세계에서제일노픈『레스트랑』이 오래지안허서 이태리(伊太利)에 나타나게되엇다 장소는『알프스』의 준령『마타-호른』의 남쪽『체르비노』봉의『피안·로-자-』란 곳으로서 일만일천사백팔십『피-트』나되는 지대다 이『레스트랑』은 직경(直徑)이십륙『피-트』로서 빙하(氷河)에 깍기고 깍긴 천고의 청아한벽으로서『콩크리-트』의『테라스』우에 단단히 설치된 철근만든『푸레-므』를 뼈로하고 사방을 유리로 둘러막은 산뜻한 건물이다 만약 이『레스트랑』이 완성만되는날이면 구원의백설을 바라보면서 눈아래의 백운을 희롱하며 술잔을 기우릴수 잇슬것이므로 벌써부터 구라파의 풍류객들은 목을늘이고 완성의그날을 고대하고잇다한다

九十五歲에離婚

【『오-크리다』發同盟】『하이람·쇼-』라는 금년 아흔다섯살된 노인이 얼마전에 이혼하엿다。『나는 이번에 단연 이혼하기로 결흔하엿다 이후로는다시 결혼하지안흘터이다』

鄭勳謨女史獨唱會

三日 明治生命講堂에서

당대의 인끼 의절정에잇는『소푸라노』정훈모(鄭勳謨)여사는 얼마전에 동경으로 건너가서 더욱더 연구를 싸코잇든바 드디어오는 삼일밤 동경 명치생명강당(明治生命講堂)에서『동경제일회독창회(東京第一回獨唱會)』를 개최하게되엇다는 바『피아노』반주(伴奏)에는 안부화자(安部和子)여사로서 이번에여사가부를 곡목(曲目)은 일작품이 태반이라한다。정여사는일찌기국립음악학원(國立音樂學院)을마치고다시제국음악학교(帝國音樂學校)에서 연구를 거듭한후『케리네·레-베』부인에게서개인교수를바다 서풍부한 성량(聲量)과아름다운 음색(音色)으로서동경 악단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그야말로 현 조선악단에잇서서 혜성과가튼존재다。(사진은鄭勳謨女史)

現代春秋傳 ⑤

褐衣의나폴레옹 突擊하는히틀러-

政治는誘惑한다! 煩悶하는美術少年

少年期

오늘도 전구라파를 소름치게하는『히틀러-』도 소년시대는『탐탁한』란 조그마한 촌락에서 비롯한다。

그의아버지는 농촌출신의 퇴직하급관리로서 지위나세력이나 아무것도 볼잘것업는것이엇스나 그래도 다만 관리엇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대단히 만족히 생각하엿고 또한 대단히 체모를 차리고 교만하엿스므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살수가업섯다。

언제언제 어디가서 어느 대신을 만나서 악수를하엿다는등、또는 언제는『원』에 가서 어느 고급관리와 저녁을 가치 먹엇다는등…『히틀러-』의 아버지는 언제나 이러한 자랑속에서 과거의 자기의 생활을 만족히 생각하엿고 또한 관리생활에 대단한 매력을 느끼는것이엇다。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어린『히틀러-』로 하여금 이후에 관리를 만들것다고 결심하고 늘 기회만 잇스면 관리라는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당당하다는것을 어린 아들에게 들려주는것이엇다。그러나 열두살난 소년『히틀러-』는 이 아버지의 말소리가 여간 듯기실흔것이 아니엇다。그는 관리가 되는것이 죽기보다 실헛다。그는 어려서부터 화가(畵家)를 지망하엿다。

(장래에 나는 화가가 된다 세계제일의 유명한 화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소년『히틀러-』의 온갓 희망이엇다。그러나 그의 완고한 아버지는 이말에 쉽사리 찬동하려들지 안헛다。

『이놈아 뭐? 화가가 돼? 세상에서 제일 게르고 쓸곳업는『룸펜』이 된단말야、응』

하고 아버지는 노여움을 참을줄을 몰랏다。

소년『히틀러-』는 학교에서도그림에는 일찌기 재주가잇다고 칭찬을 밧고잇는 터라아무리 아버지가 완강히반대를한다손치더라도 그는한번 결심한것을 용이히 굽히려들지는안헛다。

『나는 기어코 화가가 되리라』

그의 결심은 이러케 더욱 더욱 구더만 가는것이엇다。

▼……▲

그림 이외에소년『히틀러-』가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하고 또한 성적이 조흔것은 역사(歷史)엿다。그는역사시간이 늘조핫다。

『선생님、왜우리『오-스트리아』는 이러케 쇠약해젓습니까?』

그는 이런 질문을 하여서 선생을 놀래기가 일수엿다。

『그것은 독일사람의 정치가 나뻐던 까닭이다。』

『그러치만 독일은 저러케 융성하지 안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의 대답은 완전한것은 아니엇다。『히틀러-』의 의심은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엿다。

(학교도 극력으로 독일민족박해의 교육을 가르키려드는것이구나——)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독일민족이 세운 학교가 아닌가、왜 정부와 학교는 이가치 독일민족을박해하려드는가——)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이가치 정치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분수에 넘는흥미를 가젓던것이며 그리하여 동무들이 셋혹은 다섯만 모여도『어떠커면 우리"오-스트리아"의 민족이 결실하갈수잇느냐』하는 문제를 논쟁하기에얼굴을 붉히고 주먹을 부르쥐고하엿다。

▼……▲

중학교에 잇서서의 역사교육의 목적은 결코 연대나 사건을 무의미하게 암송하여서 그것을 기게적으로 기억하여서는안된다。어느 전쟁은 언제 일어나고 또어느 장군은 언제 나서 언제죽고 어느 명군(名君)은 어느해에 제위(帝位)에 즉위하엿던가——이러한것은 애초부터 문제가아니엇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붓잡고 쓸데업는것은 이저버릴것이다。——이것이 소년『히틀러-』의 역사공부하는태도엿다。

그리하여 그의 민족 역사 정치에 대한 흥미는점점 기퍼가고 잇섯다。

(幼年時代의"히틀러-")

新映畫

메트로映畫 ★★☆ 춤추는 호놀룰루

主演『에리노어·포-엘孃』

▽▼본편은『에리노어·포-엘』양이 분장한『레뷰-·걸』과 공연인『로버-트·영』과의"컴비"영화。사실 여름인『호놀룰루』를 무대로하고노래와 춤과 음악으로서 이야기의 즐거리를 삼앗스며 또한 그우에다경쾌한『유모어』를만재한『뮤지칼·코메디-』로서 과연 신추에 적당한영화다

▽▼원선『포-엘』양의 기게와가튼『탑·딴스』의 매력은 놀랄만 하다 그외에 배에서、"니그로·딴스"와"줄넘기·딴스"또한 상륙하여서 야자수(椰子樹)나무를 배경으로하고"하와이"음악에 마추어 추는"하와이"명물의『훌라·딴스』에『포-엘』양 독특의『탭』을 가미하여 추는춤에 이르러서는 아연 야성미(野性美)의 극치를 표현하여 압도적이다。

▽▼영화"스타-로"분장한『로버-트·영』은 낙천적인"양키-"의 성격을 표현하여 성공하엿고또한『라디오』"컴비"로서나 영화의 희극"컴비"로서 유명한『그레시-·아렌』과『죠-지·번즈』남녀가『커메디·레리-프』로서 활약하고 잇스며。『메트로』회사의 신진여우로서 최근에 호평을 밧고잇는『루쓰·핫시-』『라라·촌스』『G·안·세이야-쓰』『안·모리쓰』양등의 요염한 연기와『레코-드』로서 알려진『킹쓰·솔저』의 사인조(四人組)가『맑스』사형제로 분장하고『올』 … 『라·밉스』의 출연등은 과연이 명랑편의 금상첨화다。

▽▼원작은『허-버-트·피-즈』와『프랭크·파-토스』양씨의『오리지낼』을 양씨가 모두 각색한것이고

▽▼감독은『紐育』『暴港』등 걸작을 낸『에디-·부젤』이 담당하엿스며 촬영은『레스트·파일롯』『颶風』『춤추는·아메리카艦隊』등의 발표한『레이·쥰-』이 담당하엿다。

▽▼이 영화에 잇서서『에리노어·포-엘』이 추는 중요한 춤은『태양의찬가(讚歌)』『사다리춤』『줄넘기·탭』등 세가지로서 주제가(主題歌)는『호놀룰루』『오늘밤은 내기념이되겟지요』『지휘자는 음악이 실허』등이다。

(지난二日부터 明治座서에上映中。사진은 主演『에리노어·포-엘』孃)

柊林片信

▲『메트로』회사에서는『네로』왕의 전기에서 취재한 왕년의명작『쿼·바디스』를『하워-드·에스타부룩』의 각색으로서 이번에 다시금재영화하기로 결정되어 주연에는『로버-트·테일러-』가 뽑히엇고 감독에는『W·S·반다이크』나『킹·비-다-』나 둘중의하나가 담당하게될것으로서 촬영개시는 오는 십이월부터라고。

▲『에드워-드·스모-른·푸로덕슌』의 금년도 초특작은『"파고·파고"의남방』으로서 주역은『쫀·홀-』로 결정하고 오래지안허서"크랑크"를돌리리라한다

▲『파라마운트』영화『빙그·크로스비-』『봅뻬·번-즈』『도로시·라무-어』주연의『싱가폴-의길』은『태양을 차저서』로 제명을개작

▲『쎌즈닉·푸로』의 금년도 초특작『레베카』는 괴재라고지칭을 밧는『로버-트·샤-워-』가 각색을담당하게되엇다。

▲『와-너-』사의 이색잇는 전기영화로서 벌써부터 일반의 기대를 끌고잇는『에드워-드·G·로빈손』주연의『데스트』六〇六의감독은『윌리암·와일러-』로결정。

海外短信

聯邦의官吏는 一家族一人主義

【華盛頓發同盟】"아메리카"제일의 행복자라고하여 찬양을밧는『루-스벨트』대통령부인은지난팔월호 민주당(民主黨)의 기관잡지『데모크라틱·다이제스트』에다 일편의논문을발표하여『"아메리카"의관리는 한집에서 한사람이상나와서는 안된다』고하여대기염을 토하고잇다。그의논지에 의할것가트면 아래와갓다。『가속중의 한사람이라도 연방(聯邦)이나 주(州)나 혹은지방관청의관리가되어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수잇슬만한월급을 탈것가트면 그가족중에서또 관리가되는것은 생각할점이다。』

라디오 三日(火)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氣象通報 ▲同一〇時三〇時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默禱 오늘아려두실것 ▲午後零時五分 室內樂(레코-드) ▲同一時 [illegible] ▲同一時一五分 뉴-스 家庭時間『住宅과保健』朴吉龍 ▲同四時 뉴-스 [illegible] ▲同六時(咸)兒童劇『달밤』咸興放送童劇會 ▲同六時一五分 指導 劉星燦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墨子와楊[illegible]』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講演『銃後後援』 ▲[illegible]『子의思想』 ▲週間實施에對하여 總督府事務官 講演 崔夏永 ▲同七時四〇分 講演『中立國』이

▲同八時 라디오드라마『出征』 尹敬映 [illegible] 란무엇인가』 [illegible]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金鳳姬

第一放送

▲午後〇六分(東)新日本音樂 ▲同六時(東)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東)드라마 ▲同九時一五分(東)管絃樂

新秋高手對碁戰

黑、魚腹取勢보다 寒馬拔出이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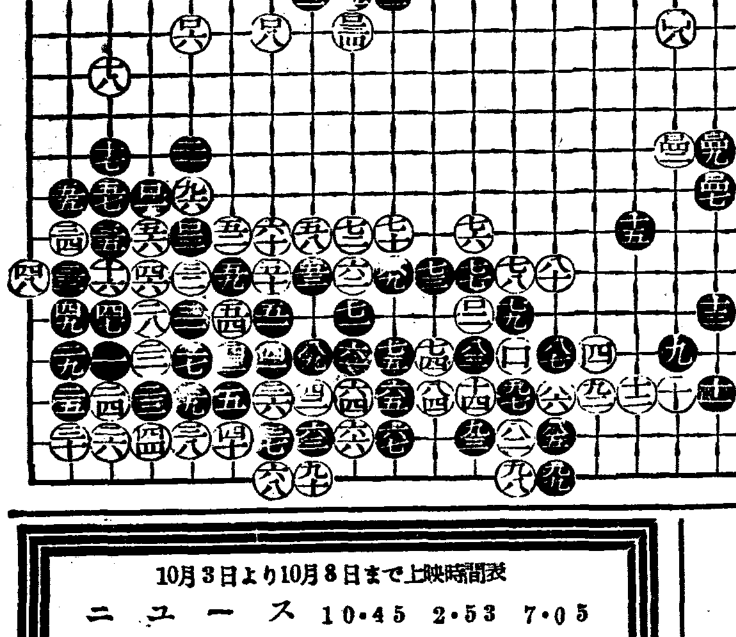
觀戰記 權秉郁

俗諺에 孔雀이 물人가에서 제그림자를 들여다보고 光彩찬 의란함을 자랑한다더니 齋藤氏 新進銳氣가 果然 그러하다 黑一三七이 庚의 六으로 白三點을 包圍하니 이는 徒勞而無益이다 何故오하면 白大馬를 卯의二로 단수로 몰앗스면 寅의 四로재처 不得己 패는 마로이다 그續會에 劫으로써 黑馬는 自然藥固히될것을 前譜에 言及한 바와가치 孔明이 西報勝棋를 머리 걸고 내어 退却하다 白은 十分危殆함을 免하고 다시 己의 二로 守備強化하니 참으로 因其勢而利導之로다 讀

同할시처 黑庚의 一로 잇고 白이 또따라 直入하고 庚의 四로 連함것은 勿論이다 그러고보니 黑의 魚腹坂에 取勢함이 그리 安富치 안흘진저 차라리 白을 苦境에 너허 살게 하엿스면 外部封鎖가 容易치 안흘까 白은 또拔手하여 丙의 一로 조흔 新陣을 構築하니 더욱 寅의 四로 細手補切하니 보기에 才品잇든 奇異하나 大體로 小利를 得하니 自己技能을 自誇하는것이 저새와갓다 愚哉인저 以下의 一까지는 모두 그러 寅하니 白이 辰의 一로 直立 보다 재처서 先手함이 如何할까 장래를고 後手하니 아마 失策인듯。

【15】 白 盧史 楚 ★黑先 齋藤正和(四目半出)

●一三七 庚의六 ○一三八 己의二 ●一三九 庚의二 ○一四〇 己의四 ●一四一 庚의四 ○一四二 丙의十一 ●一四三 寅의四 ○一四四 寅의三 ●一四五 巳의二 ○一四六 辰의一 ●一四七 乙의十二 ○一四八 丙의八 ●一四九 乙의十一 ○一五〇 未의五 ●一五一 丑의一 ○一五二 寅의一 …劫點… ○一五四 卯의十五 ●一五九 卯의十四 ●一六一 庚의十七 ○一六四 庚의十六 …打込… ●一六五 辰의十三



大陸劇場

10月3日より10月8日まで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0・45	2・53	7・05
朱と緑(前)	10・57	3・05	7・18
朱と緑(後)	12・19	4・27	8・20
極樂オペレッタ	1・31	5・39	9・32

東洋劇場 電話光 二一四五

短期巡演告別興行 青春座 豪華船 合同公演 二日밤부터 金健作『女罪囚』 [illegible] 唱劇『春香傳』全篇 金容承 脚色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平和堂 京城鐘路 一劑一円

若草東寶映畫劇場 電話本局

十月一日より上映時間表(早朝割引)

のんき横丁	10・50	2・50	6・55
朝鮮樂劇團	12・25	4・25	8・30
ニュース	1・20	5・20	9・25
金語樓の大番頭	9・30	1・30	5・30

次週上映(女の教室中篇・後篇・赤ちん教育)

松竹映畫 明治座

1月2日より上映時間表

踊るホノルル	10・00		
虹晴れ街道	11・22	3・35	6・55
ニュース	12・24	4・00	8・00
四人の復讐 前篇 新しき家族	12・33	4・23	8・14
踊るホノルル	1・43	5・22	9・14

次週上映『桑の實は紅い』『四人の復讐』

新富座 十月三日—五日 晝夜二回 七時十五分 『月光石』 英東和商事社提供 彼女は何を覺えたか 松竹大船超特作 監督 野村浩將 主演 高杉早苗 佐野周二 三映社特選提供 チンギスカンの後裔 監督 プドフキン

桃花劇場 十月三日—五日 毎日晝夜二回 『思ひつき夫人』 東寶映畫社特作 監督 齋藤寅次郞 主演 岸井明 竹久千惠子 『黑の秘密』 ワーナー社超特作 『人斬疾風雲』 金勝キネマ社作品 主演 松本榮三郞

清津 昭和座에서 相對役 金順德孃 當年六歲少女歌姬 東洋의쌀리-템플 金吉子孃 熱演 YKH 스윙그·알뱀쇼

第一劇場 九月廿三日부터 演劇號 新作劇本發表週間! 多恨 朴順女 女史의 性格숨은 演技를 乞期待! 十月二日ヨリ 唄と踊り・ジズとレヴュー 突然の大豪華版 上海ミュージッカル舞踊團公演 外國美人卅餘名の亂舞

太平館 [illegible]